

第 49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 95. 4. 18 ~ 4. 2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多) 國 忠 非 此 有 委 員 會

會 務 會 務 會 務

(12 4 - 81 4 22)

會 員 委 育 對 此 非 部 忠

목

차

1995 • 4 • 통권 제42호

I.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III.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3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89
2.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9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4월 18일 (화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제안설명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제안설명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4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보고에 앞서 4월 1일자 교육부인사에 따라 새로 발령된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십시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시설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함)

● 교육감 정인영

지난 4월 1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설과장 최명선 건축 사무관이 부임을 했습니다.

최명선 사무관은 59세로서 대전이 출생지이고 충남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62년에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대전대학교,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에서 32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드립니다.

(교육감, 시설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 경과보고

(14시 03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95년 4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되었습니다.

다음 전 회기 의결안건 처리입니다.

제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 독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3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이중 동 조례안과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은 같은 날 도의회에 제출되어 3월 30일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하실 안건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7학년도 국민학교 설립계획안과 이재희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금일 산회후와 4월 19일에는 학교방문및 의안관련 현장방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4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97학년도 국민학교 설립계획안의 처리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4월 19일은 '95년도에 새로 개교된 청주관내 신설학교를 방문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0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재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재희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본인의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

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인 4월 20일과 21일 각 11시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이상 5명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함입니다.

이상 제안한 바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이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4.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14시 07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학년도 국민학

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 내에 주택 건축으로 인한 교육인구의 집중에 따른 학생수용과 과대학교 분리및 2부제 수업 발생을 예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계획중 신설학교는 청주시에 국민학교 2개교와 충주시에 국민학교 1개교, 총 3개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주시 흥덕구 가칭 택지개발지구 내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송골국민학교와 청주시 흥덕구 분평택지개발지구 내에 36학급 규모의 분평국민학교를 그리고 충주시 금릉 택지개발지구 내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금릉국민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민학교학생수용계획중 가칭 송골국민학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생수용을 위하여 신설이 불가피하며 가칭 분평국민학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생수용및 남성국민학교의 과대화 예방을 그리고 가칭 금릉국민학교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생수용및 충주중앙국민학교의 과대화 예방을 위하여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3개교 소요부지 3만 4,987평방미터의 매입비로 89억 2천13만원 중, 64억 3백만 8천원과 설계용역비 3억 8천5백만원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확보하여 연내에 매입및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부지매입비 부족분 25억 1천 7백 12만 2천원과, 총 145억 9천18만원이 소요 예정인 건축비는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96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택지개발 계획과 신설학교 위치도를 첨부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현장방문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학년도 국민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7학년도국민학교설립계획안 : 별첨2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현지 방문을 하신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09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근수, 권혁풍 두분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근수, 권혁풍 두분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후에는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19일 신설학교 방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웅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 별첨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4월 20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1. 경과보고

(11시 0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

석요구서를 4월 1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
습니다.

금일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1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발언 시간 20분 범위내에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되 의석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일위원께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춘지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춘지 문제가 요즘 또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부조리 중의 하나인 춘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근절될 수 있을 런지 큰 걱정입니다.

지난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춘지가 말썽이 되어 형사입건 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일선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국민학교 교장단이 지난 4월 7일에 결의대회를 열고 새로운 교직 풍토조성을 위한 자정 노력으로 춘지 안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북과는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춘지라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교원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 구천서위원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남녀 학부모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응답자 810명 중 10.7%에 해당하는 87명이 교원에게 춘지를 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유형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면 교원들은 교육청에서 조차 교사들을 잠재적 부도덕자로 취급하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춘지 문제는 언론이 과장 보도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용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항변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춘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원에 대한 춘지 관행의 실태가 어떠한지 춘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초순경 새학기를 맞아서 학부모들과 춘지 문제를 의논하면서 제발 학교를 방문하거나 선생님들을 만나러 갈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춘지는 하지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얘기가 “어떻게 빈 손으로 선생님을 보러 가느냐” 하고 말하는 학부모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춘지 문제는 학교나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한 어느 기업체의 간부의 말을 들어보면 일본에서는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존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분의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하던 식으로 존지를 들고 학교에 갔다가 체면만 깎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나 한번 대접하려고 몇번이나 전화로 초청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선생님은 한사코 사양을 해서 끝내 식사 대접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년 일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일본을 떠나올 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작별의 인사겸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조촐하게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그때도 선생님은 식사 대접에 감사하는 뜻으로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선물로 가져와서 일본을 떠나는 어린 제자를 위로하더라는 얘기를 감명깊게 들은 바 있습니다.

존지 근절을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 볼 계획은 없는지요. 그와 병행해서 교사들 스스로도 존지나 향응 안받기 자정 결의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방법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위원 순서인데 사정에 의해서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재희위원님.

(김영세의장 이상일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재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재희

제가 몇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규모 학교 급식 상황을 좀 몇군데 한번 순회하면서 담당자들과 대담한 결과 확실히 소규모 학교급식운영은 좀 문제가 있구나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 영양사, 그 담당자들 만나서 지금 학생들한테 걷는 그 급식 대금이 가장 학생들에게 혜택이 제일 많이 가도록 그 운영을 하자면 한 학교에서 몇명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이런 질문을 하니까 보통 3백명 내지 5백명 급식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소재지 학교에 보면 거의가 학생 수가 백명 내외 또 인근에 있는 분교는 불과 한 30명 내외 되는 학교들이 허다한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 농촌 벽지형으로 급식을 다른 데 보다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이제 분교로 격하가 됐지만 기존의 그 시설 해 놔기 때문에

[제49회-제2차]

한 30명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급 종사원이 있고 급식 처리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물어 봤더니 인원이 적은 그런 학교에서는 우선 부식이 라든지 이런 공급이 일주일 분을 한꺼번에 가져오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고 또 값이 도매가격으로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한가지 예를 든다며는 간식으로 학생들한테 사과 하나를 준다고 그러며는 2,3백명 되는데는 상자를 몇 상자 사다줄 수 있지만 30명 미만되는 그런 소규모의 분교에서는 상자를 사다놓고 보며는, 다음 먹일려고 예비로 갖다 놓으면 쥐도 먹고, 사람도 먹고, 결국 허실이 되고 30개 필요한대로만 가져오다보면 소매값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이 쳐진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로 이 급식 조리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분교는 본교에 가서 급식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조리실만은 통폐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는 '96년도 100% 급식이 다 된다면 이제 하루 세끼중에 한끼를 학교에서 먹는 겁니다.

그럼 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아주 상당히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좀 사기 진

작책으로 처우를 조금 개선해 줄 수는 없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나 하며는, 대개 영양사들이 두개교를 겸임을 하고 있는데, 국민학교서 교과전담 선생님들이 겸임을 할 때는 월 4만원씩 출장비를 계산해 주는데 이 영양사 선생님들은 그런 출장비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히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못 받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데 요거는 좀 어떤 학교에서 출장처리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목만 있으면 출장 달고 출장비를 가져가는데 일주일에 2일을, 꼭 이틀간씩 꼭 나가서 타교에 가서 근무를 해도 여기에 대한 출장처리가 안 돼가지고 불평 많은 걸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영양사들이 방학 중에 그 급식을 하지 않는데 교원이 아니라는 그런 명목으로 계속해서 출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급식소의 청소라든지 이런 보관상태 이런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와서 근무하는 건 좋지만,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방학동안에도 급식소에 계속 나올 필요가 있는지, 이 영양사들도 장외 연수 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각급 학교

의 잔반처리기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드린일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그 타 부처에서는 이 가 장 그 공해 유발이 잔반처리, 물의 오염이 이 잔반처리에서 생기기 때문에 대규모 이 급식소라든지 대규모 식당같은 데는 잔반처리기를 정부 보급가로 할인해서 판매도 하고, 또 학교나 이런 공동 급식소에는 무료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사체과 장 말씀에 의하며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도에서 약 50대, 대당 5백만원씩 치면 2억 5천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받기를 이렇게 약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 같은 정부 산하 기관이면서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 교육계도 무료로 주는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자체로 이런 계획을 세울수 없는지,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체육고등학교에서는 금년에 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잔반처리기의 효과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급식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질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변동계획에 제천의 그 운학이나 송한학교 그 임대계획을 유보를 하고 운학국민학교를 매각을 한데 대해서 이번 감사원에서 아마 집중 감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993년 8월 16일자로 폐교재산활용지

침개선 통보를 각 시·군에 하달했는데, 이 폐교재산활용지침개선 통보는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 그 폐교 그 활용지침을 다시 정정해서 하달 하실러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 아직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대외비로 돼 있겠지만 운학국민학교 매각 그 과정을 감사원에 보고한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들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폐교학교를 임대나 우선이나, 매각이 우선이나는 견해에 따라 다름니다마는, 본인이 수차에 걸쳐서 이 강조한 것은 되도록이려는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청주시내 사무감사 때 학교매점 그 필요없다고 그래서 그 철거 요청을 했을 때, 그 학교에 그 매점을 교육장이 임대를 해주고도 그 불필요할 때 과감하게 그 폐쇄 조치를 못하는 걸 보며는 폐교 학교 전체를 임대를 해주고 명도 요청해서 제대로 될 것인가 근심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교, 이번 운학관계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이재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복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응복

김응복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교육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위해서 서론적인 상황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공간적으로 압축돼서 그야말로 1일 생활권으로 그 이름따나 지구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미주, 구주, 아프리카, 현둥이, 검둥이, 노란둥이 할 것 없이 한 마당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계화다. 혹은 국제화다. 이거 중심국이 돼야겠다. 굉장히 지금 당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더욱이 우리나라는 후발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국가 돼야겠다는 이런 것이 돼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러한 걸로 말미암아서 현 상황은 어떠냐, 가치전도가 됐습니다.

뭐가 주종관계가 뒤 바뀌었어요.

확실히 과학화, 산업화, 뭐 정보화, 일체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고 하니, 인간이 오히려 이러한 모든 시책에 도구화 돼가고 있어요.

인간성 상실입니다. 인간이 인간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시대예요. 이런 걸 감안하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그야말로 관능주의고, 쾌락주의고, 말세론적인 종말주의에 지금 인간이 처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생활기초질서, 혹은 근본적인 기초적인 윤리, 도덕까지도 찾아볼 수 없는 거여.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말미암아 현재의 축소해서 우리나라 사정, 오늘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볼 때, 실로 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럴수록에 위정자는 물론이려니와 최후의 보루 입장에 서야할 우리 교육자들 자세는 어떠해야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철두철미한 냉정한 입장에서 지기지피해서 우리의 장점은 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민족의 혼은 뭐고, 전통은 뭔가를 살려서 어디다 내놔도 동화되지 않고, 한국의 얼을 가진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경쟁에 뛰어 들어야지, 야 일본문화 들어오면 일본화, 미국문화 들어오면 미국화, 유럽문화 들어오면 유럽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

맥이, 매칼이 없어.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 관리를 우리가 참말로 교육자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현재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상황을 관리해 가야 할 우리 교육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는 모두가 분단됐던 국가가 전부 통일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유독 그것도 극과 극의 대결로 며칠전 텔레비를 보니까 이북에서는 아이들 과학교육을 시키면서 물체의 이동, 지구의 인력관계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뭐에다가 귀납시키느냐 하려는 사격에다 갖다 붙이는 거.

총을 쏘을 때 총알이 날아가는 그러한 운동과 지구의 인력관계로 말미암아서 적중률, 사격해서 적중률이 얼마나 나간다 하는 문제, 이런 걸 듣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권리는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그 사람의 지론이고, 또 한가지 남한의 적화야육의 이 정책은 추호도 변치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교육, 정신자세는 어떠한냐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아니죠, 이거는. 절박한 문제죠.

오빠 부대가 됩니까, 농구시합 봤다 하면 여중 애들, 그거 뭐 열다섯, 열여섯, 이게 광기, 미쳐요, 미쳐.

그런 걸 우린 보고도 교육자 모두 성인들 보고도, 어 일과성여, 그 시대성여, 때가 그려, 그럴 때여, 요즘 클럽활동 얘기를 중·고등학교 이게 농구가 인기라고 해서 농구 특활에는 농구 지망생이 몰린대요. 어떻게 처단을 못해서 학급당 배당을 한다는 거.

교육은 그 속성상 의도적인 조작행위입니다.

즉흥적이 아니고 시에 흐를 게 아니라 보다 그걸 의도적으로 교육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교육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참 말하기 조차 어려운 것이 중·고등학교에 이거는 담배 태우는, 먹기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성 문란, 질서 문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차마 교육자 입장에서 얘기 못할 처지라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오히려 그렇다며는, 클럽활동같은 걸 태권도를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검도같은 걸 단체적으로 유입시킨다든가, 극기훈련같은 등산 클럽을 자꾸 해서 극기, 인격도야, 뭐 이런 면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가고, 그게 안되면 희생적인 입장에서 교육자라면 일선 학교에서 그런 걸 어찌 보고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탄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는 지금 말초적인 자극에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입장에서 거목같이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교육자만이, 교육자만이라도 참말로 자기 희생적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변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제49회-제2차]

서 우리 충청북도가 교육의 세계화에 추진계획단을 발족시켰다고 합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몇가지 염려스러워서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의 세계화에 이념정립, 장기적인 비전 제시, 목표방침이 설정된 후에 도단위의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위기관에 교육의 세계화에 이념설정, 목표, 방침은 어느정도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도단위 우리 교육청과의 유대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시라든가, 가령 방침이라든가, 어떻게 일선에 구현시키든가, 이러한 시책 지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국가발전에 최우선 과제가 교육의 세계화고,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부문이 교육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나, 시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개혁되리라 짐작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혁조치가 불원장래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그러한 개혁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 세계화 추진 계획단을 발족시켜도 늦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두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은 그 속성상 고도의 이념목표를 세

우면서 각 실천의 각론에 가서는 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의 '95년도 교육시책이 밝혀졌고, 또 주된 교육 목표 방침까지도 설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충청북도 교육방침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교육세계화 추진』 이것과의 가치 혼돈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요 점이 이미 교육감이 밝힌 교육의 방침과 본 개혁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기초질서, 생활기초질서 확립과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 도덕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요 점을 어떻게 세계화 추진에 포함시켜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때에는 교육의 세계화 추진 개혁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95년도 1차 추경예산 때도 충청북도교육 세계화추진 계획단을 발단시킨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사도 초빙해야 하고 여러가지 예산도 수반될 것인데, 어떠한 항과 목에 이 예산이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

찬가지로 어느 의미에서는 교육은 극히 보수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국가 산업 발전, 기타 기업체에 뒤떨어 진다고 교육은, 한발 뒤떨어 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생각하면 교육이 앞서야죠.

그러나 교육은 어느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려는, 교육내용이 어떠한 이념에서 전개시키느냐에 따라서 세계화도 되고, 국제화도 되고, 교육의 대상자를 그러한 면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지금 위기시대에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더욱이 일선에 선 교육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 때에 교육을 살려야 할 사명감을 가지면서, 결코 거품이 꺼선 안 되겠다, 이거여.

교육은 인기주의도 안되겠다. 이 얘기여.

참말로 대지의 땅을 붙혀서 건실하게 걷기를 촉구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복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김응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김광수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충북교육을 이와 같이 이끌어 나가시는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 주민의 숙원 사업인 대학 유치에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대학 유치를 옥천서 했기 때문에 옥천 지역주민들은 아주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대학 유치로 인해서 옥천 지역이 발전되리라는 아주 기대감에 대단히 고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옥천공고가 폐지된데 대해서는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옥천공고는 아주 오래 전부터 50여년 이상 옥천의 보통 고등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많은 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아주 사회에 배출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하는 우리 농촌의 자녀들에게 아주 취업의 그러한 문이 됐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옥천공업고등학교가 도립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된 데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공고의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립 전문대학으로 승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49회-제2차]

가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공업 전문대학이 개교 연도가 당초에 '97년이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일설에 '98년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도와 우리 도 교육청과의 무슨 상의된 바가 혹시 있으려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천공고에 수용된 보통 옥천 지역출신, 중학교 출신이지요. 360여명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되려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향후 대책이 마련이 돼 있으려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유아의 조기 교육은 세계적인 추세 같습니다.

우리 나라도 유아의 조기교육이 상당히 관심이 제고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어린이를 가진 그 부형들은 세살 때 되면서, 벌써 어디 학원같은 데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유아교육이 저희들 옥천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이 조기교육이 상당히 그러한 관심 사항이고 또 그 어린이를 가진 그 부형들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취원, 그 어린이의 비율을 놓고 보니까 40%선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통계치를 옥천지역에서 빼서 봤습니다마는, 그 도심지 옥천읍의 도심지하고 그 벽지하고의 비율로 봤을 적에 도심지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통계치를 봤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원래 그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그저 있는 그러한 어린이는 그래도 학교의 병설돼 있는 유치원에 50%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읍 소재지 도심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그 취원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 옛부터 그런 말씀이 있죠.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부형들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어린 자녀들, 이와 같이 조기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관심은 상당히 높아가는 데 그걸 보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히려 우리들 사회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이북에 어느 매스컴에서 한번 봤더니, 이북에 조기 어린이 교육은 말을 배울 때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사진을 앞에 놓고서, 어린이에게

말을 배울 때 반복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김일성 수령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일 먼저 가르쳐서 어린이가 아빠, 엄마를 하기 전에 김일성 수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르쳐서 아주 전제주의, 김일성 주의를 아주 유일사상을 가르쳐 나가는 그러한 조기교육을 하고 있다. 참 무서운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일찍이 지금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어린이에게 정직한 마음, 아주 성실한 마음, 이것이 자리 잡혀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며는,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적이 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원아에게 그 월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 도내 전체에 그 수입금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쾌적한 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사를 별도로 짓고 있는 그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환경을 개선한다고 할 적에 언

제야 그 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읍 단위 이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재정이 그 너무 열악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 사립 유치원이라고 하려는 거개가 개인이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말씀 들으려는 거라도 국민학교에 부설돼 있는 그 병설 유치원은 그 교사들의 보수를 국고에서 지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원에서 원아에게 받어서 운영을 할라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최소한의 그러한 지원하는 방안이 뭐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학급당 인원이 평균 4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옥천의 경우 삼양국민학교에 유치원 반이 여섯 반이 있습니다.

40명을 한 반에 넣고 지도할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 유치원에 그 취원되는 어린이가 세살부터 다섯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살, 그 어린이만 수용하는 반,

네살 어린이 수용하는 반, 다섯살 어린이 수용하는 반이라고 하는데 세살같은 경우는 그 교사가 한 사람이 담당하기가 꽤 어렵더라, 나이가 어릴수록 그 하나하나를 전부 돌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학급 인원을, 학생수를 좀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며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에서 보며는 어린이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아마 70%이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혹시 그 아는 바 있으며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며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근수

교육위원 이근수입니다.

저는 이 교육보다도 폭력으로 인한 학생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이나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의 선

도를 위해서 학생들은 많이 참 우범학생이 없고 선량한 학생들이 많이 길러지는데 이 사회의 폭력배로 인해서 이 학생 보호가 근간에 언론이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며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길, 또는 시 단위에 교육을 받는 지방 학생들의 그 공휴일이나, 휴일에 집에서 학자금이나 하숙비를 가지고 올 때, 이것을 노리는 폭력배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학교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이 그 폭력배로 인해서 학교에서 모르는 사이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시 단위 학교에서는 특히, 고등학교조. 이 경찰과의 그 관계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학교에서의 그 선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계획과 지도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에 영동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청주에 진학을 해서 다니다가 이러한 폭력들에 시달려 가지고 영 학교를 다니지 못해 가지고 지방으로 다시 전학을 하는 이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경찰과 연계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계획상이나 또는 학교 자체에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보호 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려는 영동에서 고등학교를 청주 모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그 하숙비를 가지고 인제 휴일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길 가는데, 골짜기에서 골목길에서 조그마한 학생을 시켜가지고 유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법이 있겠죠.

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유도를 해서 골목으로 들어 갈 것 같으려는 그 폭력배들이 모여있어 가지고 그 하숙비를 갈취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이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려는 추후에 보복이 무서워서 학교에 가서 얘기도 못하고 다만 집에 와서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니까 전학까지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지방으로 참 전학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관계관이나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의 선도만 힘썼지 뭔가 선도된 학생들이 그런 폭력을 당하는 이런 것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 경찰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하는 그 계획성, 또는 학교에서의 그 지도 내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좀 서면으로라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김사수

김사수 교육위원입니다.

3월 21일날 개의한 제48차 임시 회의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적에 오창중학교 과학관 신축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 학부형 중 이성을 잃은 학부형이 익명으로 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서 협박, 공갈 조의 거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한테만 해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밤에 늦게 들어가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저의 내자에게 까지 참 거친 언투로 협박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 즉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뭐길래 건방지게 다 짓기로 결정된 과학관 신축을 못 짓게 반대하느냐” 또 그리고 “내가 이 과학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대를 했다는데 두고보지” 등등의 참 말도 안되는 그런 협박 비슷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내용은 회의록 관계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분하기도 하고 과심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볼 적에 그 항의한 사람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지 전혀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단독으로 하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본인은 교육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교육위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같았습니다.

이러해서 좋게 받아 들어서 항의한 분은 지역의 이기주의에 이른바 교육열이 참 강한 분이로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감정 정리는 일단 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사전에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과 학관 건축을 추진하라는 공문이 시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러한 행정 행위를 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본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 성립 전에 이러한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은, 또 뒤집어서 생각할 적에 교육위원회를 경시하고 내지는 무시하는 관계관들의 풍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사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김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해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박병해

박병해 교육위원입니다.

교육 충실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여러 청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교육 자체를 급격하게 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되서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하는 교육발전을 위한 한발 한발의 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주도할 세계화 시대와 무한 경쟁시대,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충북교육은 이러한 국가적 욕구에 대처하고 정보화 시대를 맞는 이런 때에 충북교육은 교육자치 정신에 걸맞는 변혁 방안은 무엇인가, 그 방안이 있는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보다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력 있는 학생과 교사활동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번에 교과 운영 면입니다.

그 운영 면에 첫번째가 어학교과, 두번째가 과학교과, 셋번째가 실업교과, 이런 교과면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에, 인간교육 면, 첫째번에 정직, 성실성, 두번째에 봉사, 근면성, 셋번째에 한국인 교육, 그래 이러한 인성과 무한 경쟁 시대에 인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국인의 주체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면을 살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번에는 건강교육 면에 그 첫째가 체력단련의 기본 교육, 두째 번에 각종 경기팀의 저변 확대, 셋째 번이 선수의 기능과 질의 최고화, 이런 문제는 결코 어떤 코치가 연습을 시키는 그러한 문제, 어디 팀의 경기단체의 모방, 이런 거 가지고는 소위 세계화 경쟁시대에 걸맞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넷째 번에는 행정의 간소화, 첫째가 법 운영의 현실화, 두째 번의 관행 답습의 지양, 이 문제는 일반 시민이나 각 교육가족들에게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든 수속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연구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째 번에 청주 북부에 현 중앙도서관 규모의 도서관 신설 계획은 없는가, 현재 중앙도서관을 보며는 엄청난 인원수가 출

입을 합니다.

다소 먼 데 있는 학생들은 일반인도 오기가 꽤 어려운 걸로 압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박병해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박병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풍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권혁풍

교육위원 권혁풍입니다.

우리 앞서가는 충북교육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좀 더 주마가편이라고 할까 하는 의미에서 건의성, 주로 건의성 혹은 그 대안성, 그런 질문을 여덟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의 사회를 10년 후를 대개 내다 보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주장하고 있는 세계화, 혹은 미래화, 다원화가 축이 되어서 굉장히 그 국가 기능이 축소돼 가는 그런 경향을 예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교육행정도 반응이 학교경영 책임제라는 이러한 그 교육자치의 개념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

행정도 역시 '95년도 중점 시책을 보며는 그 세가지 중요한 시책 중에 세번째가 자치역량 배양의 해라고 해서 학교 경영을 여러가지 면에서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현재 정착되고 있는 현황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자치는 학교단위로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고서 실천이 돼야만 교육자치의 본 취지가 달성이 된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게, 학교단위, 즉 교장에게 교육과정 결정면이라든가, 혹은 인사 문제라든가, 혹은 재정 운영면, 학사운영면, 혹은 자활학교경영, 요즘에는 이런 말씀이 별로 되고 있지 않는데 역시 행정을 경영 차원에서 볼 때 학교단위에도 역시 자활학교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자활학교경영,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학교, 이러한 몇가지 차원에서 어느만큼 학교에게 권한을 주고 있고 또한 책임을 주고 있으며, 그 시책이 어느만큼 공개가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었으며는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또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 공개문제라든가, 혹은 자율의 정도라고 할까, 혹은 협동, 교장과 교사와 주민

과 학부모와 동창회라든가, 그 협동의 양태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가 하는 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좀더 권한을 과감하게 좀 이양을 하셔서 종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책임 전가용 이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건의 겸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금 사 교육비가 무려 1년에 7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 교육비를 추월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주민의 부담을 좀더 줄여 준다는 사 교육비 절감 차원도 되고, 또 학생의 특기 지도, 전인교육 차원에서 특기 지도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다 학생들의 방과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에 전일제 수업, 혹은 종일제 운영방안, 이런 것을 물론, 지금 어느정도 그 입안이 되어서 실천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실제적으로 상설 특활반 같은 것을 좀더 활성화 해서 이걸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따른 그 교사의 지도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학교마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다 일임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기타 어떤 방안이 계신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세번째는 학생들의 지식은 단순히 책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 조사를 한다든가, 혹은 답사를 한다든가, 혹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살아 있는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을, 있는 그 수업시간을 평일로 옮겨서 실시하고 토요일 날을 활용을 해서 좀더 이러한 살아있는 교육, 산 교육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다시 말하면 책가방 없는 날, 물론 교총 신문에 보니까 월 1회 실시한다는 보도를 받았습시다. 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실천하시고 계신가, 그 취지와 기대효과와 내용 면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며는 앞으로의 이 사회는 종전의 점수따기 시험, 점수를 위한 교육, 이런 거만 봐도 도저히 우리는 세계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충북에 오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충북의 수려한 자원이라든가, 풍부한 수자원, 이 자체가 바로 경쟁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미뤄 볼 때도 우리는 점수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산출할 수 없다.

우리의 자랑인 이 수려한 자원이라든가, 자연, 이런 것을 실제 학생들이 경험으로 보

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산 교육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가방 없는 날, 물론 책가방이 무거워서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무거운 책가방은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거로써 해결을 보고 그보다 다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교실밖에서 얻는 살아있는 교육,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각 시·군마다 과학관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된지 1년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가지 도출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60리, 70리, 밖에 있는 먼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그 과학관까지 수송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수업시간표를 조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교통상, 혹은 그 위험부담,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그 과학관이 좀더 활용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과학교육에 있어서는 충북이 앞서가는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그동안 뭔가 마련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지금 대학입시 방법이 종래의 점수위주로만 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평소의 봉사활동 실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평소의 봉사활동 실적을 어떻게 자료화 해서 이걸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를 하며, 거기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에도 꽃동네라는 전국에 보기 드문 그러한 좋은 복지시설이 있고, 혹은 각처에 양로원, 고아원 같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충북의 학생들도 이런 데 좀더 가서 그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기에 대한 인성교육, 그것이 쌓여져서 대학입시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어떤 대안이 서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인근에 있는 꽃동네에서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그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아주 답지를 한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충북에도 우리 도내에 있는 좋은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의 그 인성교육, 봉사정신, 이것을 마음놓

고 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어떤 대안이 빨리 수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늘 제가 많습디다는 현 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 그 장학사들이 너무도 그 일반사무에, 즉 업무에 전전궁궁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학사 무용론, 장학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장학기능이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장학기능이 불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대로 장학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고 그것이 침체돼 있고 무용론에 까지 이렇게 얹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장학기능이 필요가 없는 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아울러서 소규모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6학급 이하의 그런 학교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와 작은 학교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물론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인사정책 면에서는 상당한 불공정, 불균형을 참 목소리 높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즉 업무량은 똑같은데 큰 학교나 작은 학교, 사람이 적어

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가지, 네가지의 사무분장을 맡다 보다 보니까 참으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교실 수업, 학생에 대한 지도는 차라리 뒤로 미뤄 놓고 폭주하는 이 업무보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고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물론 업무전산망을 통해서 참, 교육청에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다 묻지 않고 어떤 전산망에 입력을 시켜서 모든 자료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까만, 그러한 그 대안이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어떤 소규모 학교라든가, 혹은 장학사에 대해서 어떤 기능직, 혹은 일반직이라든가 기능직을 좀 줘서 이것을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그 교육감 재량 사업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지난 해에 실적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앞으로 '95년도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선 순위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번 중복 질문이 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보충 자율학습 관

계입니다.

지금 교육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볼 때, 그 학생들의 행복한 인생을 참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이게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가치관 중에 오복이란 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오복 중에 제일 마지막 다섯번째 복이 고종명이라는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명에 죽지않고 천수대로 산다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좀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그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그 능력과 소질을 남김없이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주자, 즉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죽자, 죽을 때.

그러면 한이 없이 여한이 없이 죽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마지막 행복에 다섯번째 고종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고종명이 될 수 있도록 당장 죽어도 한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소질, 능력, 특기, 취향, 이런 거를 찾아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맡은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보충 자율학습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맨날 점수 따기, 고등학교 가기 위한 준비, 대학 가

기 위한 준비, 이것에 얽매어서 말로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 구태의연한 참으로 한심한 그 입시위주 교육을 우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지금 현장에 가 보며는 지금도 역시 국민학교, 중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10시, 혹은 심지어는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문을 하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입시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인성을 중시하고 자아실현을 할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초·중등 보통 교육에서 자꾸만 몇몇 대학에 얽매어 가지고 그 우리의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쫓아 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하루빨리 독립을 해서 우리 독자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면에서 대표적인 몇개 학교를 들어서 보충 자율학습의 현황을 묻고 그 과제와 대책을 다시한번 묻게 됩니다.

그 어떤 학자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E·J 올센(E·J OLSEN)이라는 그런 학자입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 미국의 학교의 경향을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910년대까지의 교육을 아카데미 스쿨이다 해가지고서 학생들의 기억력에다가 호소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교사와 교과서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기억을 잘 하느냐, 여기에 호소하는 교육이 바로 아카데미 스쿨입니다.

따라서 교실은 한개의 상아탑으로 끝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보학교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발전이 돼서 1930년대까지의 미국학교를 얘기하는데 아동중심, 아동의 흥미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동을 이해할 수 있고 표현력을 길러 주느냐 하는 이러한 쪽으로 교육을 하는 그러한 학교는 진보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40년대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교육, 미국의 교육을 지역사회의 학교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육의 내용을 생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 통제를 하느냐,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봉사하느냐 해서 그 작업이라든가, 혹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하는 이러한 최근의 학교경향,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우리는 지금 현재 학교가 아카데미 스쿨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즉 1910년대 미국 학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가 한심스러운 일 아닌가, 이렇게 보고서 우리 교육자,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

육자들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풍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권혁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충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호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장충호

장충호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천인공노할 흉악 무도하고 부도덕한 패륜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 모두를 울게 하며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사건 발생 자체는 최근이지만서도 그것을 기 오래 전부터 기 요인이 태동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즉 그간 우리 교육이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진 반면에 물질만능, 특히 황금만능사상과 개인 이기주의가 팽창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육가들은 대오 각성하여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충청북도 교육청이 인성교육 지도자료집 “’95-1 마음밭을 일구며”를 발간한 것은 아주 시의 적합하며 뜻 깊은 일로 사료

되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를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읽은 소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 고자 합니다.

첫째, 원문 뜻이 십분 해설이 안 된 구절이 많고, 또 전혀 그 제목과 내용이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진의 파악이 안 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이 책에 내용 중 274쪽, 직업인으로서의 시민생활편에 “事從寬(만사종관)이면 其福自厚(기복자후)니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그 해설을 싣고 있는데 인용 문구와 해설 내용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더 많은 사례담이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상용한자가 아닌 어려운 한자는 음역을 표기하고 또 그 글자는 다르면서도 경우에 따라 뜻이 같은 한자에 대하여 주석을 달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254페이지에 계집녀로 되어 있는, 녀여(汝)자와 같은 의미로 통할 때가 있고, 또 논어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 설(說), 기쁠 열(說)자로 통하는 예가 종종 논어에는 발견이 됩니다.

또 실지 이 말씀 설자를 옥편에 맨 끝에 본다면 거기 기쁠 열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

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단구로 되는 그 뜻이 깊이가 없고 대구, 또는 쌍구를 대조함으로써 그 뜻의 깊이가 있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한 예로써 263쪽 “사랑으로 넘치는 이웃” 편에 “遠親(원친)은 不如近隣(불여근린)이라.” 하는 구절만 인용하기 보다는 거기다가 “원수(遠水)는 불구근화(不救近火)”라는 대귀까지 인용하는 것이 뜻을 명확히 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283쪽서부터 323쪽에 게재된 인성교육지도 자료는 그 중에 일람표, 고사성어, 명언, 명구,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283쪽서부터 300쪽까지 부록에 제목, 번호만 실을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서는 쪽수도 병기해서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면 아주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사항만 보완된다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수신서로서 현대판 명심보감이라고 할 만 하다고 확신하며, 이것이 대량 생산되어 시중에도 보급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이 책을 편찬하기까지 문헌을 모으고 연구하여 집필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과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보면서 아쉽게 느끼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인문계 고교교사 1,794명 중 한문과목

을 전공한 교사는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되는가, 이거는 전체 고등학교 교사로 본다면 3천여명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그 고교 교사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번, 교사들이 이 책을 충분히 소화하여 학생들에게 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 말씀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저도 대충대충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기초 한문학력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소화한 다음이라야만 제자들에게 올바른 뜻이 전달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번으로는 이 책을 발간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책이야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현대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무쪼록 귀중하게 널리 활용돼서 우리 인성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이상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충호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장충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제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김사수, 이근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table><tr><td>교육감 정인영,</td><td>부교육감 김근학,</td><td>초등교육국장 김태길,</td></tr><tr><td>중등교육국장 박춘용,</td><td>관리국장 신재철,</td><td>공보담당관 정금옥,</td></tr><tr><td>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td><td>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td><td>초등장학과장 김학묵,</td></tr><tr><td>초등교직과장 노현우,</td><td>중등교직과장 임순재,</td><td>과학기술과장 박용두,</td></tr><tr><td>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td><td>총무과장 고일영,</td><td>행정과장 이상찬,</td></tr><tr><td>재무과장 이기수,</td><td>시설과장 최명선.</td><td></td></tr></table>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4월 21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의결
3. 기타안건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의결

(11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00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신희 위원님께서서는 학내 사정에 의하여 좀 늦게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01분)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관 별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의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님께서 제48회 임시회에서 권혁풍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먼저 답변하신 후에 직제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정인영

먼저 지난 3월 21일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혁풍위원님께서 교육감 선출 제도에 관한 보도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모 방송국 기자가 찾아와서 교육자치 제도 개선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나도 아는 바가 없고 교육부 장관도 그 내용을 소상히 모른다

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안하더라” 그랬더니 일부 교육 주간지에서 교육위원회를 폐지한다 하는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나, 이렇게 얘길 하길래, 난 신문기사를 나도 읽었지만 일부 부처에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교육부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뿐만 아니라 15개 교육감들이 교육부 장관한테 그것은 교육자치제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를 했고, 교육부 장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자기 뜻을 밝힐 기회가 있으며는 그런 내용을 교육감들의 뜻을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 다음의 질문이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며는 이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것도 확정도 안됐고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는데, 아무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된 후의 교육감 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보도된 것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다음 질문이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며는 교원단체나 이런데서 교육감을 직접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 기사를 읽지도 못했다 했더니, 그러면서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

다며는 현직자들도 교육감에 나올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선거운동을 자기 직무를 팽개치고 선거운동을 동네로 돌아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애길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며는 도의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문도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며는 직접선거 보다는 차라리 그 방법이 낫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보도된 내용을 저는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나가면서 12시에 모 방송뉴스를 들으라고 여기저기다가 전화를, 연락을 한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저는 아는 바도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에 어제 본회의에서 이상일 부의장님께서 춘지 관행과 근절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부조리 척결의 자정운동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교육계에서 춘지로 인해서 민원이나 또는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도 없고,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공직기강 감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도 적발된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본 도

교육청에서 이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미 나눠 드렸고, 우리 본 도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자치역량의 배양의 해로 정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과제에 두번째 항목에 존경과 신뢰 받는 바람직한 교직자가 됩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학교에 불합리한 관행을 쇠신하고 교직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교장들이나 또는 일반 교사들이나 심지어는 학부형님들께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실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교육을 통해서 학교별로 교직원의 자정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본 도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저기 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 위원 권혁풍

예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동안 약간의 오해라고 할까 하는 것은 풀렸

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이 교육위원회 그 존속이라든가 교육감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 그 본의가 어떠한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정인영

에, 삼성연수원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육부 장관도 참석을 해서 분임토의 시간이 두시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며는, 15개 교육감이 다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 우리가 선불리 교육자치제도를 개선을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자치적인 어떠한 의결사항을 강화하려고 그러다가 까닥하며는 혹은 밀려다가 혹은 하나 더 붙이는 결과가 초래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로, 현 교육자치제도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장관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장관님도 여러 교육감들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상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 권혁풍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김근학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교육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심도있고 유익한 충언의 말씀과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은 김용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세계화추진 기획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공공의 공업전문대학 개편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문, 또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교육의 변혁방안 중, 행정의 간소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고 또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의 일반직 충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청 세계화추진 계획반 운영에 관하여서 여러가지 분

발과 심도한 추진을 촉구를 하시면서 국가단위 세계화의 이념이 설정이 되고 장기 비전과 목표설정이 선행된 다음에 도단위 교육청에서의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그간의 기획반 발대 경위와 현황을 밝혀 달라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본 교육청 세계화추진 기획반 발대 경위와 현황은 대통령께서 21세기를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써의 세계화를 국제화를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추진 과제 중 교육의 세계화를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로 먼저 제시를 하였고, 또한 세계화 교육이념은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비전은 모두가 동경하고 선망하는 나라, 삶의 질이 풍요롭고 살기 편한 나라를 이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장기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또 저희들 세계화추진 기구 구성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가단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94년 10월 30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단위는 '95년 2월 16일자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각 부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 기획반이 설치되었고 본 도 교육청의 경우는 교육부의 지시

에 의거 지난 3월 29일 세계화추진 기획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동 기획반 구성현황은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고 외부인 인사 4인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김웅복위원님께서서는 차후 획기적으로 단행될 교육개혁을 예측한 본 도 교육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후 발표될 교육개혁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교육개혁의 방향과 측면이 이미 정부당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육개혁의 방향은 인성과 창의가 존중이 되고 자율과 경쟁 원리가 중시되고 또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또한 불필요한 과제나 균형은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 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교육개혁 내용이 발표되며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김웅복위원님께서서는 '95학년도 교육개혁과 본도 교육시책과의 조화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도에서는 교육계획을 교육추진, 교육계획 구상을 본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제49회-제3차]

하고, 특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자치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경영을 추진토록 하고자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있어서 학교장의 자율 결정의 폭을 대폭 확대토록 하고 점수위주의 평가제도를 탈피하여 전반적인 인격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효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로효친 등 민족 정책성 교육을 강화하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활동을 가능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직 교원에 대한 연수 기회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네번째로 김웅복위원님께서서는 인간성 회복 교육을 위하여 본 도의 교육개혁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는 날로 포악해지는 사회 전반의 비 도덕적, 반 인륜적 사건이 빈발하고 특히, 청소년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인간성 회복 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교육시책 제2항의 전인교육에서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대통령 지방 순시에 교육감께서 절제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와 같이 본도에서는 3,4년 전부터 예절, 경제, 질서 등 인성교육자료를 학교·급별로 발간, 보급하고 학급 담임이 하루에 한 덕목씩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점차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성 회복 교육을 세계화 기획반에서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고대로부터 지녀온 전통인 예절의 고장, 충절 효경의 고장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화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화추진 계획 및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웅복 위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에 두번째로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공고의 전문대학 개편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학교 재산 및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옥천 전문대학이 옥천공고 부지에 설립됨에 따라서 옥천 공업고등학교의 재산은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중에 있는 일반회계 소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토지와 옥천공고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도청 당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개교 예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전문대학 개교 시기는 당초에 '98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역 사정에 의해서 '97년 3월은 힘들고 '98년 3월로 조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옥천공고에 수용하던 학생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하나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옥천군 내의 고등학교 신입생은 옥천공고 11학급 572명을 포함해서 4개 고등학교에 28학급 1,37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군 내에 중학교 졸업생의 심한 감소로 인해가지고 옥천공고의 신입생을 모집 중지하여도 옥천고, 옥천상고, 청산고 등 3개교에 6학급을 증설하여 수용하며는 수용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 학생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증설된 학급을 다시 감축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공고 폐지에 따라서 옥천 지역의 공업계 학과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옥천상고에 상업계 학과를 감축을 하고 공업계 학과를 신설해서 수용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옥천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은 교육부의 설립,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이 있는 후에나 확정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해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충북교육의 변혁 방안 중 행정의 간소화 측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해 위원님께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충북교육의 변혁 방안에 관하여, 다섯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중 네번째의 행정의 간소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법 운영의 현실에 대하여 여러가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청에서도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사항은 교육감 회의, 부교육감 회의 및 관계국장 회의 때는 물론이고, 공문을 통하여 수시로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각종 회의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51건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고교평준화 개선등 24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제49회-제3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수시로 각종 회의나 공문을 통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함으로써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행이나 답습 행정이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관행과 답습은 행정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고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개선을 위해서 각종 규정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전환 및 동기 부여를 통한 창의적 업무수행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연수를 지속적, 방법적으로 실시해서 관행을 시정토록, 잘못된 관행을 시정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발굴, 포상함으로써 모든 교직원이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해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의 장학기능을 보강하고 소규모 학교의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일반직 정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일반직을 학교에 배치해서 장학기능을 보강하고 소규모 학교의 교원 업무 경감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 총 정원 동결 운영지침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행정기관의 축소,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소규모 국민학교에 일반직을 확대 배치하는 문제는 중앙 부서와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장학기능이 보강되고 교원업무가 경감되고 교원 지원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제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위원 김응복

한가지만 당부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

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보며는 그 지향하는 목표를 대개 이념목표를 제시하는 게요.

그래서 했다면은 종전의 국제화, 혹은 뭐 이런 면, 내 걸었을 때에 세계화라는 이념, 목표는 각 부분마다, 각 부분마다 다 해당된다고 봐요.

과학면에서의 세계화, 또 인격면에서의 세계화, 외교, 기타 사고방식, 여러가지의 세계화, 이것이 모두가 해당된다고 봤을 적에 교육목표, 국가목표를 이렇게 세울 적에, 이 서술에 모든 항목에 세계화가 대개 아마 뒤따를 것으로 또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내용이나 학습해야 할 그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면은 목표성을 세계화에 두고 동시에 방법면에서, 방법면에서 개선을 되리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이래 봤을 적에, 너무 우리가 요란스럽게 세계화라고 해서 서두르고, 뭐 서두려서야 나쁠 게 없죠. 뭐 서둔다기 보다는 차분히 이제까지 우리 본도 교육감께서 이렇게 천명한 교육방침, 또 교육방법, 내용, 지향점, 이런 것을 내실화 시키고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해 감으로써 그것이 세계화다, 이거여.

결과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세계화 교

육에 그게 어학이 됐든, 어떤 과학이 됐든, 실업이 됐든, 인격소양 기타의 모든 면에서 지향하는 것이 사실상 세계화가 말은 요란스럽게 안 떠들었지,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계화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선 교육자, 교단에 선 선생님들 기타에 미치는 일체감, 어떤 실감, 피부로 느끼는 감같은 것이 그냥 이래 붙여봐도 되고, 저래 붙여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세계화라는 말 자체가 경솔하게 가볍게 취급될 이럴 염려도 있고 이래서, 제 소견이 좀 모자란지 모르지만은 이제까지 해 나가는 교육에 보다·의도적으로 지금 시대성을 감안해서 세계에 그런 세계화라는 실감을 주면서도 교육내용을 종전에 하던 것을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철두철미, 참 그 효과 내실화를 기하는 데서 기해야겠다. 이렇게 봤을 적에 기획단 멤버를 보더라도 대학교수들이 거기 몇 분, 아마 초빙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 몰라요 그 권위를 부여하기, 권위면에서 혹은 뭐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하건데도 우리 교육자 자원에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조금 실감을 주지 못할 지언정 제 의도는 어디까지나 종전에 해오는 교육자체를 조금 내실있게 더 다지고, 우리 자체

를 더 내성, 성찰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도 구체적인 일선학교에, 가령 과학이면 과학, 실험교육이면 실험교육, 또 혹은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 이런 것이 자그마 하나마 챙겨주고 실속을 기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다 이루어 지지 못하는 데서 아마 국가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참 상위 이념, 목표, 기타 여러가지가 다 되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인제 하시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차분히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리고, 요새 효의 교육을 한다 해서, 어느 도에서는 요새 인사말을 할 때마다 “효도합시다.” 하는 얘기라고 좋다고 이렇게 해서 보도, 신문보도에도 나고,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마 구체적인 한 예겠조.

여하튼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충청북도 교육 수준을, 뭐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전국에서 내일있고, 참단을 걷고, 또 이제까지 교육시책 면에서 아마 우리 충청북도 같이 선진지 인식을 가지고 앞서간 예도 없어요. 사실, 여러가지 면에서.

이런 걸 감안했을 적에 좀 내일면에서 더 철두철미를 기해 주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혼돈이 가져오지 않게 아주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임해 주십사, 거기에 너무 세계화, 세계화 하라는 것도, 뭐래도 그냥 참 부칙을 세계화 부칙을, 또 그런 것을 과장하고 거시기 하는 이런 면이

없도록 내일을 기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내일을 기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부탁겸 해서 착실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김응복 위원님 말씀은 답변은 요하지 않으시는 거죠.

● 위원 김응복

예, 예.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 위원 김광수

예, 제가 좀 몇가지 질문 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옥천 공고가 폐지되고 전문대학으로서의 개편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구체적인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재산 문제 처리는 도교육청 재산하고 또 일반 행정기관 재산하고 교환을 전제로 하신다고 하셨조.

● 부교육감 김근학

예, 교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 김광수

예, 그것이 어떻게 군 내로 하나요? 전체

적으로 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 부교육감 김근학

그 도 단위 것은 우선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또 균형이 안 맞으려는, 그 옥천군 관내에 있는 그 옥천군 공유재산하고 교환관계도.

● 위원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는 전부 전체적으로, 도 단위로 놓고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부교육감 김근학

그렇습니다.

● 위원 김광수

예, 그러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도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도 단위 전체로 보고 있고, 그것이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옥천군 관내에 있는 군유재산,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 위원 김광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려는, 옥천의 입장으로 봐서 옥천에 있는 공고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옥천지역에 있는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여력이 있다며는 다른 지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 부교육감 김근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수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여중이 그렇지 않아도 옛부터 운동장이 군 유지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라고 계속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있는 그러한, 군 유지나 도 유지를 우선 먼저 하시고 그래도 여력이 있다며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공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김근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광수

그렇게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예.

● 위원 김광수

예, 그 다음에 개교 시기 문제가 당초에는 '97년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98년도로 이렇게 지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이게 개교 시기는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개교 시기는, 인저 학교개편 하는 주체가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재정부담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교육부하고 그 충북 도하고 또 저희들하고 얘기되는 사항은 '98년 3월에는 개교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위원 김광수

'97년은 좀 빠르고?

● 부교육감 김근학

예.

● 위원 김광수

여러가지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이요.

● 부교육감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광수

예, '98년이나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애
기지요?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예.

● 위원 김광수

왜 그 말씀을 또 물으느냐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학생들이 그 개교함과 동시에 공고
에 지금 현재 재학생이나 공고에 지금 희망
하는 그 학생들을 다른 데로 수용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한 중에, 옥천에 중학교
학생들이 공고로 희망하는 그 학생이 공과를
희망하는 학생을 수용하는 문제가 아까 말씀
중에 옥천상고나 또 다른 고등학교로 분산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습
니다.

옥천상고로 그 상과를 좀 줄이고서 거기다
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옥천의 고
등학교에다가 또 증설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이 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근학

저희들, 우리는 저희들이 지금 그 구체적
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옥천상고에 상업
계 학과에 감축을 하고.

● 위원 김광수

상과를?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일부 감축을 하고 공업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업계 학과를 신설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 위원 김광수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상고에다가 분명
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의향이 있다.
이런 겁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옥천상고에, 저희들이 공과를 옥천지역
에 공과계통을 설립을 한다고 그러며는, 옥
천상고에 병설을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 위원 김광수

우선 상고에다 병설하는 게요?

● 부교육감 김근학

예.

● 위원 김광수

학교를 상고로 그냥 두고, 학교명을 바꾸
지 않고 그냥.....

● 부교육감 김근학

그거는 그때 진행과정을 봐서 옥천상, 공고를 하든지 하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김광수

그때, 그 말씀은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뭇이가 분명하지 못한 것 같으네요.

그냥 병설만 하는 겁니까? 그럼, 할 계획입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그때 이제 그 공고, 공업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 위원 김광수

지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요?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저기 김위원님.

● 위원 김광수

예.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교육감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들으시면 어찌시겠습니까?

● 위원 김광수

아, 물론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면 더 훨씬 좋지요.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예, 그러면 교육감님 보충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정인영

감사합니다.

개교 시기 문제는 당초에 교육부의 계획은 '97년도에 개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청에서 추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97년은 어렵고 '98년에야 개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개교 시기 결정은 설립자가 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승인을 맡아서 개교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학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고등학교 지망 희망자들의 수용계획은 현재 옥천고등학교의 학급도 늘쿠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옥천상고에다가 상과를, 가령 예를 들며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결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상과를 한, 두학급 감축하고 공업계열을 세, 네학급 증설하고 이런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그 지역의 학생들의 수용에 따라서, 수용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지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영동에서 옥천으로 공업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영동고등학교, 농고에도 공업계열을 더 강화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서 '98년

도에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천상고의 교명을 옥천상고로 하느냐, 또는 종합고등학교로 하는 거냐, 이것은 그 지역의 여망과 뜻을 수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광수

예, 우선 옥천지역에 그 공업학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학생 수요는 한 3백 한 오, 육십명 돼요.

앞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98년도 가며는 몇명이 될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옥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안 가도록, 옥천의 학생들이 옥천 내에 다 수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감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광수

또 한가지는 과를 신설을 해야 될텐데 공과계통 과를 신설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공업학교에는 여러가지 과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업학교로다가 공과를 신설을 한다고 할 적에, 무슨 과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계획이 있으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인영

그 용어를 제가 확실히 여기서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실습 기자재를, 이 문

제는 옥천상고의 부지가 비좁고 건물, 실습동을 많이 증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뭐야, 기계과라든지 이렇게 증장비를 요하는 이와 같은 학과는 신설할 수가 없고, 전자과라든지, 통신과라든지, 어느 면으로 보면 실습 기자재가 경량급인 가벼운 이와 같은 첨단공업계열, 첨단공업계열로 학과를 증설할 이와 같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광수

특히, 전자과나 전기과, 그런 분야가 되겠네요. 그럼.

● 교육감 정인영

첨단공업계열.

● 위원 김광수

예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이 옥천에 들어온다는 데 적극 환영을 하면서 일부 서민층들은 옥천에 그러한 공업학교가 있어서 자녀들이 공업학교를 나와서 취업이 참 잘 되고 있는데, 이것 참 큰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과라든가, 전기과, 이런 분야는 지금 현재 100% 취업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산업현장에 나가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공과계통으로 가서 앞으로 잘,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심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교육감 정인영

옥천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교육적인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광수

그런데, 그 상고 그게 걱정이에요.

교육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학급을 많이 증설할 적에는 교지가 좀 적어서, 적어서 그렇게 거기다가 증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업 학교라며는 공과계통이라며는 실습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십분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인영

예.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박병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위원 박병해

법 운영이나 혹은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해 내려오면서 정부에서 편위위주로다가 많이 과감하게 개편을 해 가는 이런 취지도 있고

한데, 그동안 해 오시면서 뭔가 해결해 놓은 것, 앞으로라도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을 좀 해야겠다. 뭐 이런 것이 뭐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교육부나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시정을 요청을 해가지고 많은 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아까 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최근에 한 51건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24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해

조금 더 크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는데 잘 들리지 않아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를 못하겠네.

● 부교육감 김근학

아,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51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4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개선을 약속을 하고 검토하

겠다는 이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위원 박병해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 이게 일반 국민이나 우리 교육가족들이 손쉽게 뭐든지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거는 자꾸 수집을 해서 상부에도 얘기를 해서, 이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다. 이게 도 자체로만 움직여선 안되겠다. 이럴 때는 관리국장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나, 교육감 회의 때 전국에서 다 똑같은 보조로다가 이걸 해결해 다구. 이런 소리도 한번 상부에다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사립학교 같은데 보며는, 국립학교하고 좀 일하기가 어려운, 개인별로 뭔가 제출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조그만 차가 있는 것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편위위주의 어떤 해결책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해 봤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박병해 위원님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 위원 박병해

예.

● 위원 권혁풍

그러면 제가.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질의하세요.

● 위원 권혁풍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학기능의 문제,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사들이, 실정을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그 보통 단순업무까지도 일일이 그 학교에다가 이걸 공문을 내서 다시 자료를 구하고 하는 일로써, 아주 그 채워져 가지고 그야말로 장학기능은 뒤로 미뤄지는 그런 현실이라는 걸, 현재 다 알고 있으리라는 걸 압니다.

지금 전산망이 어느정도 돼 있는지, 지역 단위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건가, 그리고 통계처리같은 거, 단순업무 처리같은 거, 꼭 장학사가, 관리과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가, 업무 분장면에서 그런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저희들 행정단위 전산망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 지역교육청 단위는 완성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행정의 기반하에, 다 이루어져서 행정의 신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단순한 통계업무는 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업무는 자기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통계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기본적인 통계는 담당하는 부서가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처리를 하겠지마는 개인

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이 확보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권혁풍

그런데 제가 장학사들한테 여러번 심도있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일선 학교의 장학을 하고 있는가 했는데,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면 장학사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장학사가 제대로 장학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필요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장학사 무용론에 대해서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무용론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장학사 기능에 대해서는 전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이 흔히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장학행정도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지도 방법론 개선 등 이런 데로 전향이 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본 교육청에서도 장학행정 업무를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종전하고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청자 확인장학, 이런 걸로 내용이 바뀌가지고 일선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장학행정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권혁풍

좀 부탁을 드리는데 장학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좀더 강화시켜서 실질적인 장학기능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위원 김광수

예 의장님.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아니 지금은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어느 분께 질문, 답변을 요하는 거죠?

그러면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위원 김광수

마치며는 저희들이 이런,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마침 교육감님이 임석이 되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좀 말씀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서글픔을 느껴보기는 참으로 저 인생에도 처음 느껴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려는 교육제도 개선이니, 교육개혁이니 해서 날마다 신문에 오르 내리고 있고, 또 교육자치제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하느니 또 뭐 어떻게 하느니, 이런 얘기가 사실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금 12시가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최근에 재정경제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나 또 행정을 원활하게 기한다는 그런 차원등, 이래서 현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내무 행정기관에다가 뭐 통폐합해서 옛날 합의제 교육위원 제도를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 보도된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진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뭐 또

무슨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교육개혁 발표를 곧 뭐 발표를 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선상에서 교육자치를 하면서 저희들 교육위원이 선출이 돼서 교육위원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아까 교육감님 말씀도 교육위원이 없어지려는 교육감을 어디서 선출하느냐 하는 거 때문에 사실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나와서 오해하긴 저희들 오해가 있습니다.

해명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선출을 해 준 교육감인데 교육감이 어느 방송 대담에서 도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상당히 저희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마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미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러니 저러니 나오는 것은, 또 재정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바꿀려고 하는 개혁, 개선을 할려고 하는 그런 모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교육부에 자주 회의를 가지고 또 그 교총이 교육감 회의라든가 이런 계통에서도 많이 이런 문제가 논의됐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무슨 들은 그 뱃이가 있으려는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교육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교육감 정인영

부의장님 그것은

● 위원 장충호

의장님, 저 의견이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예.

● 위원 장충호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질의, 응답이 끝난 뒤에 기타 사항에 가서 해야 할 일이지 질의, 응답을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획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가서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의견은?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지금 질문이 나온, 지금 바로 교육감님께 의견을 청취하자는 안과 이것이 끝난 다음에 기타 토의사항에 답변을 듣자고 하는 장충호 위원님의 안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수)

● 위원 김광수

지금 그 장충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는 교육감님이 임석을 안하실 것 같고, 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당하기는 기타 시간에 한다면, 다른 기회에 하는 것이 사실은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그러시려는 기왕에 어려운 시간, 임석해 주셨으니까 장충호 위원님 잠깐 교육감님 말씀 듣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 위원 장충호

좋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정인영

교육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의 참 관심사가 이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저 역시도 이 교육제도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분야를 위해서 많은 정보도 입수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추진위원회나 또는 교육계별 위원회의 근본적인 그 개혁의 방향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개혁의 과제,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 교육제

도 개선을 교육 관련자들에게 맡겨 두었더니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연의 교육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 고 하니, 교사들이나, 대학교수들이나 또는 교육감들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교육위원들도 다 자기 권한을 강화하는 자기 입장을 더 좋게 할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다. 교육개혁이 교육관리자들, 교육공급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교육개혁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교육개혁의 방향이 교육공급자, 교육관리자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 학생이나,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첫째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학부모들한테 덜어줍니다.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제일 첫째로 내 세우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새 보도되는 거 보며는, 학부형들이

한달에 백만원, 뭐 이백만원, 사교육비를 부담을 하고 있다. 뭐 이걸 중앙의 얘기고, 이 지역에서도 다소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7,8년 전에 보충수업 제도가 생겨났을 때, 보충수업 제도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내 세운 것이 학교 이외에 외부 학원에서 과외를 받을려고 하는 과외 욕구를 없애고, 그 과외 욕구를 학교에서 충족시켜 주자.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보충수업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아직 학부형들이나 앞으로 학생들의 공부를 더 할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보충수업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과외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학교에서 일반교과에 관한 보고, 더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보충수업에서 충족을 해 주기는 합시다마는, 그러나 어떠한 특수 기능분야, 가령 바이올린을 한다는지, 무슨 뭐 특수분야에 관한 욕구는 학교 안에서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이 학교 교육이 보다 내실을 기해서 학생들에게 적성이나 능력

에 알맞는, 그와 같은 개별화 교육이 더 강화돼서 학생들이 더이상 바깥에 학원이나 이런데 나가서 과외를 많은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과외를 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은 개선이, 노력이 교육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혁의 두번째 과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여러분야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줘야만 된다 하는 것이 두번째 과제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졸업하는 학생은 무조건 자기 관내에 중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만들어 났고, 또 중학교 졸업생들은 일부 지방에서는 자기 진학하는 고등학교를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평준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규정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고등학교도 그 특색있게 고등학교가 발전되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명년도부터 적용해서 실시되게 됩니다.

그거는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개설되는 교과목이 29개 교과목인데 10개 교과목만 필수선택이고, 나머지 19개 교과목은 고등학교 나름대로 특색있게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특색이, 고등학교 별로 특색있는 학교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발전된 특색있게 발전된 모습을 보고 중학교 졸업생들이 자기 진학한, 자기 개성이나, 자기 능력이나, 내가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을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거. 이것이 세계화의 하나의 또 과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 이것을 교육개혁의 두번째 과제로다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의 과제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종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 안된다.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박병해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교육감 회의에서도 여러가지 정부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집약을 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교육감이 52가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는 거 복사를 해서 서류로다가, 내용을 시방 52가지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보내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학교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신한 방향으로 교육발전이 교육되게 하는 거, 이것이 교육개혁의 세 번째 과제입니다.

저도 이 정부방침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뭐 교육위원 수를 몇명으로 한다. 교육위원회를 없앤다. 둔다. 또는 교육감을 어디에서 뽑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져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바라는 자기 욕구에 맞는 그와 같은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교육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김광수

아니 참 좋은 말씀 교육감님, 교육개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또 추진하고 있는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몰랐던 것을 알아서 펍 다행입니다.

그런데 초미의 관심사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얘기가 그래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교육감님은 두루두루 들을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 교육감 정인영

교육감님 간담회나 이럴 때 장관님이나, 그 교육정책실장, 보통교육 지방교육지원국장, 이런 분들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여기에 애기된 것은 외부에 밝히지 말아 달라고 주문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릴수 있을 지언정 공개된 자리에서 그 주문을 받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김응복

말씀하셔도 별 상관없잖아요
(장내소란)

당연지사고 또 당위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시더라도 교육감님이.....

● 교육감 정인영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요구하셔도 밝힐수 없습니다.

● 위원 김광수

그런데 교육자치라고 할 것 같으려는,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교육의 자주성, 또는 전문성, 또 정치의 중립성, 이게 헌법 31조 4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 지방 특수교육을 이렇게 참 해 나가게끔 그러한 데에 근본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제도 개선이니, 뭐니 하는 걸 볼것 같으려는 그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교육감 정인영

헌법 31조에 규정돼 있는 교육의 자주성 또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한다 하는 것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육현장에서 자주적으로 또는 적극성을 가지고 또는 정치에 개입을 배제해서 한다는 걸을 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제도를 구상하고 이르는 데까지 언뜻 생각컨대 국회에서도 국회는 여러 정당에 가입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교육제도를 논의할 수 없는 거냐,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를 배제한 이와 같은 걸 보장해 주자 하는 근본 정신이지, 정치가가 교육문제를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아니다. 정치가가 논의할 지언정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이나, 정치적인 개념을 도입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 위원 김광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다는 거죠.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여기서 더 자세한 말씀을 못해 주는 교육감님 입장을 십분 이해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

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과 의장 사회교대)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직제에 의한 순서를 조금 바꿔서 관리국장께서는 오늘 출장건이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을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8월 16일로 폐교재산활용지침 개선 통보를 각 시·군에 저희들이 하달을 했는데 이 하달된 지침이 현재 계속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지침 시달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내려보낸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폐교 활용지침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지침을 변경해야 할 거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

[제49회-제3차]

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에도 내 수업료 징수금액과 사용내역, 또 영세 사립 유치원의 재정지원 방안,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또 어린이 방 운영에 관하여 아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수업료 징수금액과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중에 공립 병설유치원 수업료 금액은 시 지구가 만 7,600원, 읍 지구가 8,500원, 면 지구가 4,420원, 그래서 총 징수금액은 7억 3천만원으로 이 금액은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지원액은 약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교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가 54억원, 운영비 7억원, 그 다음 시설비 2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4년도 투자규모로 볼 때 유치원 수업료 징수금액은 총 유치원 지원금액의 8%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부족액 82억 7천만원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및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립유치원에는 보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법규가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법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당 인원 40명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유치원 급당 원아 수는 교육법시행령 제182조및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4내지 5세의 반은 40명까지를 할 수가 있고, 수용을. 3세 반은 15명 내지 20명을 편성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립유치원은 367학급에 8,023명으로 학급당 평균인원이 21.8명이고, 사립유치원은 353학급에 만 650명이 취원을 하고 있어서, 학급당 평균인원이 30.2명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립 전체평균은 약 26명, 25.9명이기 때문에 26명으로 봐서 이는 실질적으로 읍단위 중심학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적정인원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계셨던 옥천 삼양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6학급에 211명이 취원을 하고 있어서 학급당 편성인원이 35.1명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현행 급당 편성인원은 점차 저희들도 하향조정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

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방 운영에 대해서는 유아교육 진흥법상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유아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아원은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로 되어 있으며, 일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감 재량사업비에 '94년도 집행실적과 '95년도 계획, 또 집행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경비, 즉 재량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회계년도 중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경상교육사업비가 전체예산의 0.3%, 투자교육사업비는 전체예산의 0.7%까지 계상할 수 있으나, 경상교육사업비는 0.15%인 7억 5백만원, 투자교육사업비는 0.35%인 16억 4천 5백만원으로서 총 23억원, 2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95년도에는 경상교육사업비가 0.2%인 10억원, 투자교육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인 0.5%보다는 0.3%인 15억원으로서 총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94년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상 교육사업비 총 7억 5백만원을 도서구입비로다가 14개 기관에 9천 백만원, 방송시설비로 4개교에 1억 6백만원, 합주반, 고적대중심학교 운영비로 20개교에 2억 1천만원, 교재교구 구입비및 기타 사업비로 66개교에 2억 9천 8백만원을 집행했고, 투자교육사업비 총 16억 4천 5백만원은 단양공고 강당에 1억원, 보은여중·고 다목적 교실에 2억원, 제천수영장에 13억 4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집행계획은 경상교육사업비 10억원을 과학관 내부 시설비에 2억원, 도서구입비에 2억원, 컴퓨터 영상실에 2억원, 교육활동우수교에 2억원, 기타교육사업비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투자교육사업비 15억원은 종합체육시설에 4억원, 내수국민학교, 수봉국민학교, 제천중학교 강당시설에 3억씩 9억원, 기타 시설사업비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경비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사업의 성격 및 시기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으로 집행의 우선순위 기준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장 소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49회-제3차]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김광수위원 질의하세요.

● 위원 김광수

그 유치원 관계를 도내 유치원 현황을 유 인물로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바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광수

그리고 유치원사 관계는 관리국 소관이 아 니신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위원 김광수

유치원사.

● 관리국장 신재철

아, 초등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광수

예, 예.

● 의장 김영세

되겠습니까? 또 다른위원 보충질의 없으 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 위원 권혁풍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으로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이 고쳐져 가지고 남 자학교에서도 가정실이 필요하고 여자학교에 도 어떤 그 기술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

는데, 그렇게 될 때는 남녀공학인 학교는 이 두가지가 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요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답변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권혁풍

예.

● 관리국장 신재철

그 기준을 저희들이 남자, 여자 공학하는 학교에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기술 실이나 가정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학교마다 전부 뒤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운 데에는 다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는 있습니다.

● 위원 권혁풍

앞으로는 그럼, 뭐 대비가 되겠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 다.

● 위원 권혁풍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없으시죠?

(위원 모두 침묵)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다음엔 초등국장님.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나, 그 내용 중에서 여섯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관리국장님께서 네가지는 말씀을, 답변을 하였고, 저는 두가지하고 유아교육의 내실화 정착, 또 하나는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이 두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 말씀을 올리고 유아교육의 내실화 방안으로서는 첫째는 활동 주제 중심이 교육개혁을 수립을 하고 활동중심의 유아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둘째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유치원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 거기에는 1일 생활계획을 반영, 연중 실천을 하고 또 모든 생활영역에 반영을 해서 지도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번에는 유아교육의 내실화 방안으로써 가정과의 연계지도, 가정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부모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부모교육은 유치원 별로는 월 1회,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 별로는 연 1회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 담당장학사의 일반연수를 실시하고 또 자율장학, 자율장학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유치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합동장학을 실시한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유치원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유치원 교재교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재교구 전시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에 따른 기준량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아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다섯가지를 실천을 해서 유치원 교육을 내실화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올리고, 둘째번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쪽에서는 유치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현재 시·군당 1개원씩 청주시는 지금 유보상태입니다마는 10개 시군에 10개원을 원의 독립원사를 신축, 또는 지금 신축 중에 있으며 지역 유아교육의 쉼타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상이 확보되는 대로 유치원에 쾌적한 환경시설 개수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독립원사, 이 문제는 제가 교육부로부터 국내에서는 가장 시범적으로 또 제일 먼저 선진적으로 착수를 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둘째번, 권혁풍 위원님께서 학교단위 책임

[제49회-제3차]

경영제의 정착현황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육과정면에서, 인사면에서, 학사운영면에서, 자율학교, 자활학교 운영면에서 또 지역사회 학교운영, 이렇게 여섯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책임경영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번,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책임경영제의 정착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 1995년서부터 '97년에 걸쳐 적용,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 교육과정, 이것이 교장 책임하에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됐고, 작성이 됐고, 운영도 학교장 책임하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그 교육과정이 운영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초등분야에서 금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작성이 돼 있느냐, 이걸 290개교의 교육과정을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6차 개정 고시에 따르는 정신에 맞도록 작성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미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학교별 인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또 교장이 교사임용 제청권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면에서는 예산 운영계획 수립시 전직원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또 전직원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 재정운영은 교직원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중 인문계 고교까지도 도급경비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면에서는 교원, 학부모, 학생의 제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학교 운영면에서 어떠냐, 질문하셨는데 자활학교는, 성격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활학교에 대한 문제는 벌써 몇년 전에 그 당시 이 자활학교를 애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측면, 이 자활학교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지역사회 학교로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학교 운영면은 어떠냐, 지역사회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조사, 수립, 활용등 학교와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제 권위원님께서 이 지역사회의 학교에 가장 선구적인 학자 올센 (OLSEN)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사회의 학교가 될려면 올센의 열개의 다리를 봐야 된다. 그것을, 그것을 저희가 도내 교장선생님들에게 전부 한장씩 이렇게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역사회의 학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올센의 학설을 이미 3월

초에 인쇄 배부해서 학교장 선생님들은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 이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의 정착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가 뭐냐 할 적에, 학교가 이런 수동적인 경영형태에서 능동적인 그런 경영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자치역량배양에 필요한 교육행정 지원을 좀 더욱 강화를 해서 학교의 자치역량에 배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자치 자치역량 배양의 해』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종일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종일제 운영을 왜 해야 되겠느냐, 그 필요성은 여러가지로 교육적 의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하려는, 학생들이 교외로 나가서 사설학원에서 과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사교육비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연간 20조원이 된다. 이럴 적에 그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한다 하는 측면도 이 학교 종일제 운영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들의 교외 과외를 학교로 흡수하자 하는 이러한 뜻에서 학교 종일제 운영이, 그런 정책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민학교 예를 말씀을 드리며는 국민학교에서 일과를 마치고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할 적에 크게 세가지 활동으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초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담임교사가 교과학습 보충 심화지도를 해준다. 즉 학력 부진아, 또 학력 우수아, 그 학생들을 남겨놓고 기초학력 확보, 또 학력의 심화, 그런 쪽에서 교과학습 보충 심화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합니다.

둘째번에는 특수 재능아 지도, 이걸 하기 위해서 상설특활반을 조직 운영한다. 이것도 방과 후에 실시를 합니다.

이건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이루어 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상설 특활반 조직 운영 실태는 지금 전 국민학교가 상설 특활반을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여기에 물론 지도교사는 특기반 담당교사라든가, 담임선생님이 여기에 지도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셋째번에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 다마는 학생들의 교외 과외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자원 인사를 초빙해서 국민학교 특별 활동반을 지도하자, 이것은 지역사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우리 학교 교육으로다가 끌여 들여서 이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특수교육 측면에서 특기

[제49회-제3차]

교육 측면에서 활용을 하자, 그런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이 자원인사 초빙 학교가 초등학교 280개교 중에서 86개교, 30%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 학생은 9,283명, 자원인사, 강사로 나오시는 분은 195명인데 거기에는 내국인이 그러니까 학부모가 186명, 외국인이 9명, 외국인이 9명이 자원인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사 195명 중 유급 강사가 137명, 무보수 강사 58명, 이 무보수 강사는 명예교사가 되겠죠, 58명.

지도 종목은 영어회화를 위시로 해서 컴퓨터, 전 25종목, 25종목이 이 자원인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강사 보수 재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어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지도강사 이 특별활동반, 그러니까 자원인사 초빙이 됐든지 상설 특활반이 됐든지, 선생님, 즉 교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도교사에 대한 보통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것은 이걸 아직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번에 또 권혁풍위원님이 말씀하신 책가방 없는 날, 그 운영현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가방 없는 날은 이 교육정책으로서 교육정책으로 펴 나가는 것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그 운영상의 방침이 확고히 수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책가방 없는 날이 오히려 교육활동에 혼란을 가져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침은 우선 이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은 인성교육을 이걸 내실화 하자는 이런 방침하에서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운영한다는 이런 방침, 또 집단활동을 통해서 자율성, 협동성을 거기서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 또 앞으로 미래 사회가 주 5일 근무 사회체제로다가 그렇게 변한다라는 역시 교육도 거기에 대비한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또는 현장체험 학습측면에서 이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은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고 난 뒤에 이게 시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교육정책으로 이걸 권장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월 1회 정도 하라는 겁니다, 월 1회.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며는 주 1회로 이렇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 5일은 교과활동을 하고 하루는 책가방 없이 등교시킨다. 책가방 없이 등교시켜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은, 현재 저희 도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 이 문제는 학교장의 판단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도내 국민학교의 17개교, 17개교가 책가방 없는 날을 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괴산에 있는 동인국민학교입니다.

거기는 기본예절 교과 보충, 견학, 노작, 봉사, 탐구, 창의적인 활동, 수련활동, 즉 기초교육, 현장체험교육, 또 개성화교육, 이런 쪽에서 동인국민학교가 주 1회 4시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동인국민학교의 효과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장학 전문직에서 역시 교육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뿌리를 내릴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질의 하실 분.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김광수위원 질의하세요.

● 위원 김광수

이것이 내실화 문제하고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천읍 삼양국민학교 예로 보며는 지금 현재 유치원에 나가고 있는 학생이, 어린이가 211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 그 인원은 3세이상 841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볼 적에 한 25%정도인가요. 이거만이 취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3세에는, 3세짜리들은 어쩔지 모르지마는 지금 지방에, 지역의 실정에 보더라도 4세, 5세들은 이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는 안 나가더라도 이 어린이들이 그 사설학원같은데, 그 음악학원이라든가, 또는 피아노 학원이나, 또 그 미술학원같은데, 이런 데는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기교육이라고 하든가, 이런 데에 부형들 관심도가 대단해서 이런 데라도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볼 적에 이 유치원에 나가고 있는 학생이 저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충분한 그 부형들이 원하는, 또 어린이들이 원하는, 그 뜻이가 제대로 안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어제 김위원님이 옥천지역에서 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원율이.

● 위원 김광수

전체해서 그래요.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전체해서.

● 위원 김광수

군내 전체로 볼 적에.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그러며는 저희 시내지역이 약 43%입니다. 시 지역이.

읍 지역은 지금 66%입니다. 취원율이.

또 면이하는 약 62%, 그래서 평균 저희 도 내에 3세에서 5세까지 50.63%가 지금 취원을 하고 있는데, 옥천은 타 지역에 비해서 취원율이 적다. 저도 어제 말씀을 듣고서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시 지역이 적은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낮아진다. 근데 옥천에서 다른 군·읍지역보다 한 20%이상이 초과가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옥천교육청하고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뭔가 생각을 해 보려고 어제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수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시 지역에는 이 국민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과정이 다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한가지 저희들 옥천 얘기를 드리고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원아들이 지금보다 많이 지금 삼양국민학교 예를 들어서 211밖에 안됩니다마는 보다 많은 원아들이 희망을 했을 적에 수용관계는 희망하는 대로 다 받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전인수적인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 사립유치원은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이 공립유치원에도 이것이 많이 지금 취원을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지금 비율로 봐서는 거의 시 지역 같은 데도, 사립과 공립과 이것이 취원관계가 그전 같이 사립유치원 일색으로 다가 취원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경향, 징조가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사립유치원을 선호를 하게 됐었느냐, 아까 제가 유치원 계획의 내실화 쪽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활동주제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과거에 유치원, 유아교육의 목적보다는 즉 뭐냐며는 유아교육의 교과지도 영역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다섯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가지에 중시하는 것 이외에 문자 지도를 해준다는가, 어떠한 한문교습을 시켜준다는가, 또는 어떤 그 유치원의 어떤 미술학원같은 이런, 그래 부모들이 제일 선호한 것이 세살, 네살, 다섯살 어린이가, 유치원을 보냈더니 대번 제 이름을 쓴다. 이거는 문자해독을 했다. 또 천자문을 읽는다. 또는 어떤 고사성어를 안다.

또는 어떤 시조를 유치원에 갔더니 배우고 오더라, 이럴 때 이 부모들로 봐서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내용이 참 상당히 거기에 선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방법이 어떤 고사성어를 외운다든가, 천자를 이결 외운다든가, 또는 문자를 외운다든가, 해득한다든가, 우리는 유치원 교육에서 문자의 자형, 자형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사립에서는 문자를 해득하는 쪽으로, “가” 뭐 이렇게 “가”자를 안다든가, 또는 “어머니”를 쓴다든가, 또는 제 이름을 쓴다든가, 그 문자해득 쪽에서 사립에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 측에서는 그것이 참 유치원을 보냈더니, 일취월장, 문자도 알고, 한자도 알고, 뭐 그런 것이 실지 유아교육의 목적에서는 그렇게 공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과거에 선호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설이 좋아서 했다고 보다는 그런 교육내용 쪽에서 부모들이 선호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교육을 통해서 유치원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이것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유치원 부모들에게 하나의 유치원교육에 대한 하나의 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전환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 위원 김광수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유치원 교육환경 관계를 아까 참

말씀해 주셔서 펍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제 유치원을, 유치원 사를 각 시·군단위로 아마 한 학교씩 이렇게 지금 조성이 돼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방에 실정에 들어 보니까, 국민학교에 교실 병설유치원인 경우, 교실이 남아있는 교실을 유치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 위원 김광수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교실을 주는 게 아니고, 남는 교실, 별로 좋지 않은 교실을 유치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살에서 다섯살 그 이외의 어린이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더욱 곤란한 것은 화장실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적에,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1개 면에 지방으로 볼 적에, 1개 면에 유치원을 학교마다 병설을 하는 것 보다 그 소재지 권에다가, 소재지 학교에다가 유치원을 이렇게 병설을, 참 유치원을 두고, 그 나머지 학교에는 유치원을 두지 말고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은 우리들 생활수준이 높아서 읍 소재지 정도만 하더라도 그 유치원 선생님 얘기가, 우리 학교에는 재래식 화장실밖에, 좋은 교실은, 본관 같은 데는 안주고, 저기 저 못 쓰는 교실을 주다 보니까 화장실도 그 본관 교실의 화장실을 못 쓰고 그 쪽에 쓰다 보니까 참 불편이 많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환경이 안 좋아서 문제를 가지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촌학교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둔다고 할 적에, 학교마다 다 들게 아니라 몇명씩 안되는 것을 소재지 학교에다가 유치원사를 만들어서 전부 수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를 형편이 되는 대로 조속히 어떻게 이루어져 주셨으면 하는 소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 위원 이재희

저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 위원 이재희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일반시민들이 사설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이런 질문에서, 이제 그 초등국장님이 점점 이제 공립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직접 손을 몇년동안 유치원을 보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학교에 병설돼 있는 유치원이 원비도 싸고, 좋은 걸 아는데 실지로 학부모는 안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 그 이유가 유치원 선생님들이 정식으로 이제 교사 발령을 받은 이후에는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사명감이나 친절감이 사립유치원보다 적다. 이겁니다.

책임감, 이런 것이 좀 정비돼야 우리 병설유치원이 살아나지, 이렇게 보면 전에 강사들이 있을 때는 원생들을 강사들이 모집을 하러 다녀가지고 학급수가 찼는데 이게 정식 발령만 받아놓으면 전혀 원생모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많은 시설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국가에서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이제 유치원도 공교육화하려고 하려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선 자질교육이라든지, 이거부터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데에 집중을 시켜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음.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장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장충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양에 사설유치원이 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의 하나가 천태종 구인사에 한 말사가, 단양읍의 광법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경영하는 그 유치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그 사설유치원을 선호한다는 그 원인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알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재희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한가지 돈이 문제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는 모르지만 단양은 그 시내라고 해봤자 거기가 거깁니다.

그러나 전부 말하자면 유치원 스쿨버스타까, 버스를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싣고 태워다 가르친 다음은 또, 집으로 또 실어다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유치원에 유치원이 남아돌 정도였고, 우리 공립 단양국민학교 부설 유치원이 워낙 인원수 채우느라고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고충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보충.....

● 위원 권혁풍

예 제가. 아까 자활학교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현재 좀 운영이 좀 안되고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청주시내 같은 데는 어렵지만 이 시골학교, 도시, 농촌학교, 이런 데는 실습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있는 학교가 많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실습지를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팽개칠 게 아니라 이걸 좀 이용을 해서 급식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닭을 기른 다든가, 혹은 채소를 기른 다든가, 기타 토끼를 기른 다든가, 이런 생산교육, 혹은 노작교육 차원에서 혹은 학교경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걸 충분히 이용을 해서 급식에 좀 보탬이 된다면은 예산절약도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하던 건데 요즘은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보고 또 그것 말고도 지금 이 대학같은 데서는 학교 발전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는 왜 이걸 못하느냐, 좀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마는 이걸 당당히 좀 지역사회의 인사들을 교육에다가 끌어들인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발전기금같은 것도 좀 모금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학교가 적극적으로 사회에도

참 봉사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인사, 인적, 물적 자원을 흡수한다는 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교장, 인사제청권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로 실시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학교 종일제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학생들이 사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끝난 뒤에 두, 세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학교 종일제 운영이 잘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더 이것을 활성화해서 한다며는 사교육비 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강사의 수당관계도 물론 그 근무시간 중에 교사가 특별지도를 했다. 그런 건 수당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강사에게 엄청난 무슨 큰 돈을 준다고보다, 어떤 격려금 차원에서 학교마다 있는 자문위원회, 여기다가 일임을 해 주며는 여기서 뭐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주는 학교도 있고, 또 못 주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이 자활학교가 이게 1960년 내지 '70년대에 당시의 교육사정에 의해서 자활학교, 뭐 향토학교 건설, 향어촌 건설, 마을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주창이 됐었습니다.

자활학교해서 학교에 자치기금, 자치기금을 당시 교육재정이 부족했으니까 그걸 좀 자활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서 교육재정에 보탬을 좀 얻어보자는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이 자활학교 건설을 제창을 했었어요.

그래 지금 권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학교 실습지, 실습지에다가 이 실과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어떤 가축같은 것을 길러가지고서 하는 것은 이게 국민학교 측면에서는 이걸 저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체력이라고 할까, 인내력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닭을 길러가지고서 그 수익을 잡어가지고서 어떤 자활학교를 길든다. 또는 급식에 보탬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활학교라는 근본 정신 측면에서는 이것이 국민학교에서는 지금 어렵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농고에서 생산품을 수익해서 어떠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 실습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잡어서 학교 재정에 도움을 준다면, 그쪽에 과거에 원당국민학교에서 그 유기농법 그

연구를 해가지고서 급식에 도움을 준일이 있습니다.

또 진천의 학성국민학교에서 만평이나 되는데 거기서 실습지에서 채소를 길러가지고 급식에 보탬을 한다 하는데, 현재 그건 자활학교라고 하는 문제에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학교 어린 실업생으로써는 그 자활학교, 거기서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예산에 보탬을 한다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없다. 단지 그것이 실과교육의 일환으로써 실험실습 이런 쪽에서 실습지를 이용한다든가, 닭을 길러본다든가, 토끼를 길러보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학교에 어떤 돈을 좀 자체기금을 확보해 보자는 이런 거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서 학교발전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좀 도와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봄은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민학교에서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춘추로다가 주로 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소의 동문들이 학교를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고, 그리고 또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모은다. 발전기금을 모은다 할 적에 이게 어떻게 허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이런 말씀을 올렸고, 강사수당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 특활활동을 하면 후원들이,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 후원회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또 거기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꼭 그 내용은 지금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개별 강사 수당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권위원님께 제출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인사를 초빙을 해서 어떻게 강사수당을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주고, 이런 것이 얼마만큼 개인당 경비가 얼마나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권혁풍

발전기금 관계는 그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 음성의 매괴여상은, 물론 해마다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특별활동한 작품이 많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수예를 한다든가, 그걸 바자회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인으로서도 그리고 교육쪽의 차원 의미도 있고, 거기서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청주혜원학교, 거기서도 매년 4월에 그걸 합니다.

바자회를 해서 이런.....

● **위원 권혁풍**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다음에 중등국장님 지금 정전이 돼서, 저 지금 원고가 잘 안보일텐데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하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전이 됐는데 정전의 원인을 한전당국에서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국장 답변을 통계숫자같은 것은 요구하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에 중등국장님 답변하세요.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이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학교에 조리실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명인데 소규모급식 학교 43개교 중 현재 일곱개 학교가 공동조리를 해서 유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공동급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검임 영양사에 대한 출장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영양사의 방학 중, 장외연수 문제는 교원이 아닌 일반직이기 때문에 일반직 봉급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번째, 급식학교의 잔반처리기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공급계획에 의해서 시가 군수의 지원과 관내의 52개 학교에 잔반처리시설의 지원을 받도록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섯째, 체육고등학교 급식소에 잔반처리기 이용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6일에 5백만원 상당의 37킬로 용인 고속건조기를 설치할 해서 위생적으로 매립, 처리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한 효소

퇴비는 화분이나 또는 하단에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있고 따라서 환경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근수 위원님께서 학교 주변 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서면요구하셔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근수

됐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다음 김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중학교 과학관 건립추진 공문을 예산 통과 이전에 미리 시달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군 지역의 특수성과 북부지역의 과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건립을 계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원군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한다고 한 것이 담당자의 교체에 의해서, 또 전에 재량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착오를 일으켜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위원님에 대해서 누가 되고 또 심기가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나 교육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한 바는 추호도 없습니다.

공문을 사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해 위원님께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충북교육의 변혁방안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운영, 인성교육, 건강교육 면에 무엇이 있으며 청주 북부지역 도서관 증설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운영 면에서 어학, 과학, 실과교육에 대해서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세계화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이것을 보다 더 내실있게, 또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우리 교육내용을 더 알차게 보강을 해 나가면서 새롭게 세계화에 부응할 그러한 교육내용을 발굴, 펴나가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학면에 있어서 우선 국민학교에는 영어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회화 특별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국어 회화 대회를 운영하고 또 영어 특활반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있어서는 사회 영어중심의 영어교과수업이 전개되도록 학급에서 반드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권장을 하며 또 여가가 있을 때에는 교내에서도 회화를 중심으로 쉬는 시간이나 여유가

[제49회-제3차]

있을 때, 학생이나 또는 선생님이 일정한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경시대회가 또 예선을 거치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작년에 청주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독일어의 부문에서 전국대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서울이 일등을 하고 저희가 2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에 영어평가를 지금까지는 다섯개 문항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8개 문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영어듣기평가를 1년에 네차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원어민을 14명을 초청을 해서 영어교육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금년에 벌써 여덟번째 미국에 치운대학에 초등 5개부문 1명씩 11명, 중등교사 30명, 41명을 어학연수를 4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을 해서 원어민을 9월부터는 세사람을 초청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해서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교사의 회화능력을 더욱 신장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또는 종일제로 연수를 하도록 이렇

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화교실을 4개 국어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청주시내에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충주에는 다국어 지도에서 충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순회지도를 4개 교과를 지도하도록 벌써부터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영어선생님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나 독일에 5명씩 문화원과 교섭을 해서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식위주의 교과운영을 해 오고 있던 것을 탐구활동과 실험실습을 강화하고 과학교과 대비해서 지난 해에 과학교육에 대한 학습지도 모형을 개발을 해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선택이 되어서 전국에 보급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재교실을 운영을 해서 컴퓨터 또는 과학동산이나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서 특히, 수학, 이런 분야의 전국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반, 발명반, 그리고 우주 소년반, 이러한 특별활동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취미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를 1,362명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용 컴퓨터는 국·중·고를 막론하고 금년에 100%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용 컴퓨터 시스템과 교실 램망을 설치해 해서 첨단적인 그러한 교육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교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교육에 대해서 학과 개편과 시설의 첨단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고 실업학생 비율은 48대 51.1로 전국의 선두를 점하고 있는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고부문에 있어서는 첨단 유니온실을 시설을 하고, 공고에 있어서는 전자기계과나 정보통신과로 주로 개편을 하고, 특히 금년에는 충북공고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 시설은 전국에서도 가장 첨단적인 시설을 해서 우리 기능인력 양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상과를 주로 사무자동화과로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공고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을 해서 기술지도, 또는 자격증 기능을, 자격증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 두번째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정직성이나 성실성, 봉사반 편성, 한국인 교육,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냐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및 경로 효친 교육추진을 위해서

국민학교는 『바르게 사는 슬기』, 중·고등학교는 『마음발을 일구며』라는 인성 지도 자료를 발간을 해서 각급 학교의 담임들에게 배부를 해서 조회나 종례시에 한 덕목씩 꼭 지도하도록 권유를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주로 지도를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아확립을 위해서 정직성, 성실성, 근면성을 지도하고 효경지도라는 전통윤리를,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는 질서, 봉사, 민주시민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한국인 질서교육이라는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지도하고 통일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크게 세번째, 건강 교육면에 대해서 체력단련을 위한 기본교육 방안, 각 종목별 육성팀의 저변확대에 선수의 최고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단련을 위한 기본교육 방안으로는 지금까지는 구기운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많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것을 지양하고 전 교과에 걸쳐서 고무 지도를 하고 수업전 반드시 순환운동을 시켜서 체력단련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인 1운동을 적극 권장을 하고 체조를 반드시 매주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제49회-제3차]

평가를 해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 종목별 육성팀의 저변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실정과 학교여건에 맞는 운동종목을 교구종목과 국민학교 112개교에 대해서 230종목, 중학교에 대해서 83개교 190종목, 고등학교에 대해서 58개교 219종목을 지정해서 국민학생에서부터 선수 발굴을 지도하고 우수선수가 지속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계열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선수의 최고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별로 유능한 순회 코치를 연차적으로 증원을 하고 국민학교에 중점배치를 해서 기초서부터 철저하게 지도가 되도록 하며, 체육 영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습득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고교에는 종목별로 체육 특기교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체력경쟁을 육성토록 해 나가며 체육고등학교 운영을 더욱 수준높게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를 정예화하여 교환정보나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등에 참가하는, 파악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를 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사례를 발표를 해

서 역시 연구 실적 등으로 반영해서 발굴, 진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큰 다섯번째가 됩니다.

청주시 북부의 도서관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주시 여건상 북부지역의 도서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덕성국민학교 남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바로 1,100평 정도, 우선 여기에 청주시가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풍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권혁풍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학교 과학관 운영,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방안,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보충 자율학습 현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과학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4년의 6개 과학관에서 이용한 연 인원은 12만 7,117명으로, 교원연수가 1,125명, 그리고 자료활용이 2만 3,862점이 활용되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교 과학관의 기능은 당해 학교학생의 기초과학, 기술교육, 관내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실험실습 및 과학관 견학, 그리

고 관내 과학 영재교실 운영, 과학관 별로 지정된 특수 과제 해결, 그리고 과학과 교사의 연수, 과학교육 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간 운영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부각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과학관 운영을 전담할 교사를 배치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과학관 이동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인 봉사활동에 대한 방안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봉사활동 실적평가 기준에 따라서 심의, 결정된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고 있고 본인과 학부모에게 공개, 확인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의시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내용으로서 꽃동네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의 봉사활동에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호고등학교가 실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번 교장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가 되는 중·고등학교 보충자율학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충수업의

기준은 희망하는 학생, 희망하는 교과에 대해서 또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결과에 의해서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은 중학교가 91.9%, 고등학교가 87.7%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1시간, 끝난 후에 1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은 역시 3학년만 하도록 돼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1,2학년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의 시설을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 외의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또는 마을회관, 또는 마을에 있는 공부방 등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시내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충수업의 방향, 또는 전인교육차원, 이런 면에서 전망을 말씀드리면, 성적수준별로 반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6일, 전국 중등장학과장 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학구가 시작된 후이기 때문에 전부 반 편성을 다시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보충수업 시간만은 학력수준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반 편성

을 재검토하고 학력수준별로 조직을 해서 실시할 그러한 전망이 있고, 또 시내 교장회의에서 이미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고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학력수준별로 반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여자 중학교에서는 영상을 통한 영어회화 시간을 매일 보충수업 시간에 운영을 해서 영어회화 교육의 획기적인 기대와 발전을 갖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충수업시간에 논술지도 또는 컴퓨터나 또는 예·체능 교과에 이르기까지 학교생이 중심이 되어서 창의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취미, 개성발전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인문계 고등학교의 한문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몇 명인가, 두번째, 교사들이 인성교육지도 자질을 충분히 소유해서 학생들에게 교수할 수 있는가, 세번째, 이 책을 발간한 취지의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장충호 위원님께서 그

『마음발을 일구며』하는 책자를 정독, 독파를 하시고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책이 다소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아주 잘된 내용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한문이, 고등학교의 한문 교과를 전공한 선생님은 18명입니다.

그러나 국어과 교사로써 부전공으로 한문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지도 자료집을 충분히 연구하고 숙독을 하고 자신있는,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항시 선생님은 교재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러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이 책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덕목지도는 약간의

연구를 하며는 다들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간취지와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백 덕목을 매일 종례등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한 덕목씩 주입 계획을 세우고, 또 연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인성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학급에서는 학급일지에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두고 개별적으로 학습장을 만 들어서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학급회의를 열어서 어떤 덕목을 가지고, 그 느낀 바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발간을 하고 제공을 한 그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장학협의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충호 위원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중등국장님 답변하려고 나오셨는데 저는 중등국 소관의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재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불이 나갔는데 보충질의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학교가 공동조리를 하는 데가 중학교이상 교육청 관내, 많은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면이라든지, 또는 아동급식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는 분교 50명 미만되는 분교이하, 분교하고 본교는 유치할 수 있는데, 여길 좀 어떻게 권장을 해 주셨으면, 또 특히 어제 또 말씀은 드렸습시다마는 공동조리도 공동조리지만 스쿨버스 하나로, 한 차로 태워올 수 있는데 이러면 교우관계나 여러가지 측면이 좋으니까 실험차원에서 한번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교육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예, 박병해위원님.

● 위원 박병해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것은 여섯가지인데 여섯가지를 여기서 답변을 할려고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써서 나중에 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녹음도 잘 안되고 하니까 그 질문을,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위원 박병해

세계화 경쟁률이 무한대로 돼야 하겠다 하는 얘기, 이런 데에서 교육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하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서, 또 앞으로 교육이 그렇게 발전돼야 하는 것을 여러분께 질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을.....

(장내 소란, 전기가 들어와 불이켜짐)

● 의장 김영세

마이크 사용하세요.

● 위원 박병해

우리가 지금 세계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면이나 과학 과목별로 지도, 이런 데에서도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몇이 앉아서 뭔가 상의 말씀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선 도내의 각급 학교 선생님한테 본도 아이디어도 한번 공모해 봐서 그런 데 좋은 아이디어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교재교구라고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재력이 뒷받침 안되면 앞으로 그런 수준을 이끌고 갈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한 말씀이 안 계시는데,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모두가 다 사실상 세계화

수준은, 세계화 수준은 아느냐, 지금 떠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준을 아는 게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적에는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목표가 돼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라도 우선 그거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도·농간의 차는 엄청나게 도저히 촌에서는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돼 버리고 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며칠 전서부터 수월성 교육,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는 독일어, 어느 학교는 영어, 일본어, 뭐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몇씩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 금일에도 여기서 조금 발표를 들어요.

이 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

계속 그렇게 해 나왔는데 그렇게 사뭇 나들 게냐.

요 전번에 사석에서도 서로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같은 거, 4년 간을 한번도 애들이 보도 못하고, 만져보도 못하는 바람에 그런 엄청난 죄악도 저질러 지고 있어요.

우리 이럴 때, 이 세계화, 무한 경쟁시대에 촌 아이들은 그럼 계속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렇게 나들 게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 무한경쟁, 무한경쟁하는데

학생들을, 경쟁을 어느정도 풀어 놔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로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공부도 서로 상의를 해 가면서 오손도손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자꾸 이렇게만 하다보며는 친구간에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게 암암리에 좋지 않은 이런, 경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인성적인 면을 볼 때에, 학교에서 이 무한 경쟁시대의 지도도 한번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마는, 차제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체육면에서 전국이 다 이 체육에서 희생되는 학생들은 따져보면 정확히 우리 도내에만 따져도 선수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중도에서 탈락하는 아이들, 졸업하고 1등이나, 2등이나, 이런 데 상장을 거머지지 못한 아이들의 희생, 이런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겠는데, 요즘 어느 학교든지 선수지도 해나가는 것이 보면 구태의연해요.

그 전 하던거나, 지금하는 거나, 계속 똑 같고 유달리 하는 거는 체육고등학교에서 유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가령 검토를 하는 학교다 그러면 검토하는 학교는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가 니것, 내것이 없이 아주 많이 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선생님들 중에는 아주 참

한심스러운 이런 양반들이 있는데, 한번 서울에 아주 유명한 양반들, 과학기능선수, 현역 유명한 코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서 무상으로, 이래서 한번 지도를 해 본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전부 끌고 가서 코치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전부 역으로 끌고 가서 거기 참석을 안시키고 탄 학교에서 연습을 시키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하는 것 보다 월등하게 좋은걸 폭로가 되면 자기가 뭐가 되느냐, 이런 알팍한 생각, 거기를 참석을 안시켰어요.

식에만 참석을 하고 되로 끌고 와 버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코치나 지도교사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발전은 있을 수도 없고 학생들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희생자가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가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조금 좀 생각을 하셔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시간은 '대략 10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혁풍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주 초등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발표력이 요즘에는 눈에 띄게 신장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이 함께 발전이 돼서 초등에서는 참으로 열린교육의 효과가 점점 확산돼가고 있어서 참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중등에 까지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등만 올라오면 그냥 입시위주 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 자율학습을 좀 늘리는 게 문제가 되는데 과연 초등에서 닦여진 그런 열린교육 체제가 중등부까지 연계가 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사그러지고 말아버려요.

이래가지고 교육의 세계화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수가 있느냐, 입시위주 교육을 중·고등학교에 와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교육의 세계화에 맞는 애긴가, 아니면 구태의연한 그런 애긴가,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책가방 없는 날이라든가, 혹은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해가지고 초등에서 닦여진 열린교육 체제가 중등까지

연계가 되고 할 수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그것은 고등학교 입학이 지금 무경쟁 상태로 지금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경쟁없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대학입시 방법도 농촌의 특례입학이라든가, 혹은 인성교육, 봉사교육,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그런 마당에 계속 옛날식 그런 입시 교육가지고 통할 수 있는 것인가, 좀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열린교육이 중등교육과의 어떻게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질문드리고, 또 과학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에 여섯개 시군에서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그래 과학실험실 활용면에서 본교에서 사용한 횟수가 2,582회라고 하는데 그 외에 타교에서 활용한 것은 512회에 불과합니다.

거의 5분의 1정도, 본교에서 주로 쓰고 있고, 타교에서는 본교에서 쓰는 거에 5분의 1 횟수에 정도에 그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아닌가, 원 취지는 그 시·군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가 고르게 쓸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돼 지지 않고 있다는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는 그 원인이 그 과학관이 있는 소재지로부터 한 옥, 칠십리 심

지어는 사, 오십리 이렇게 떨어진 학교의 학생들을 어떻게 수송하느냐는 수송문제가 가장 큰 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이상입니까?

● **위원 권혁풍**

예.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권위원님께서 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린교육의 중등학교까지 연계에 대한 가능성이 없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계화, 무한경쟁 말씀을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모순되는 말씀을 드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중등학교에 오며는 이게 학부형들의 관심이 더 달라집니다.

또 학부형들의 이 교육관, 학력관, 또는 직업관, 이런 의식이 현재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한, 바뀌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일류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선의의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제일 세계에서 제일을 차지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

며는 우리가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시험제도가 있고, 선의의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는 입시지옥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학부형의 욕구를 등한히하고 바뀌서 도외시하고 정말로 우리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했을 때, 학교장, 또는 선생님의 신뢰성을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저는 일선에 교장을 했습니다만 학교가 평가를 받는 것은 상급학교의 진학을, 바뀌서 학부형의 자녀에 대한 진로를 어떻게 열어주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인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부르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일선학교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인교육을 어떻게 해야 전인교육이나, 또 입시교육을 어떻게 해서 학부형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냐, 여기에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아실현을 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소질, 잠재능력 등을 최대한 개발을 하고 신장을 해서 세계화에 무한경쟁시대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며는 예체능, 덕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지식없이 아무리 체육을 잘해서 피아노를 잘해서 특기자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땀다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입시제도에서는 기준 점수를 수학능력고사에서 획득하지 못하며는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며는 이 국민학교의 열린교육이 과연 중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염려스럽고, 또 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발표력 신장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참여식 수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학생위주의 수업을 하도록, 그런 가운데에서 사고력이나 발표력이 신장될 수 있고, 또 과학수업 같은 데에서는 특히 탐구력 신장이란가 실험실습을 강화를 해서 창의력을 신장을 해 나가도록 이러한 지도를 수시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며 가능하나, 안하나, 이거는 어떤 실험학교를 둔다든가 해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등에서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입시 지옥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명제는 학부형이건, 우리 교직원이건, 관리자건,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 자식을 하나를 기준했을 때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과학관 이용에 대해서 타고 학생

의 활용 빈도가 매우 부진하고, 또 수송문제도 대단히 염려가 되는데 크게 문제되는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드릴때 학교 과학관의 기능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해 학교가 위주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각 학교에서는 과학실을 가지고 있고, 실험실습실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 실험실습은 충분히 해결을 해 나가고 특별한 과제를 실험실습을 못하는 이런 경우에 학교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교에 없는 기자재를 견학을 한다든가, 뭐 이와 같은 면에서 관내 학교들이 활용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학수업을 전적으로, 전적으로 학교 과학관에 와서 실험실습을 한다든가, 과학교육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목적에서 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재교육, 과학영재교육, 그리고 지역과학 교육센터, 이와 같은 역할을 주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학교 과학관 활용방안은 그 교장선생님과 전담교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내용에는 역시 관내 과학 교사의 연수, 그 연수 중에는 과학 실험실습, 또는 과학이론, 또는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데에 더욱 활

용에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목적에 운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고 활용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또 이게 1년 밖에는 안됐기 때문에 운영의 묘도 아직 정착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데에서도 그 하나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학관에 오기 위한 수송문제는 학교에 관내에 국민학교의 스쿨버스나, 또는 부득이하면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학교 과학관에 오기 위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또는 시간이 안맞아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못왔다. 이런한 보고를 받은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심층적으로 심각하게 분석 보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현재 크게 문제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전담교사 티오 하나를 더 주어서 교사를 배치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위원 권혁풍

그 열린교육이 상당히 전 효과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이것 어떻게 중등하고 연계시키는 시범 실험 학교 이런 것은 계획 없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느 교장선생님도 꽤히 수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래서 부형의 욕구가 내 자식만은 일류학교를 보내자 하는 그러한 욕구때문에 결국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렇다며는 결국은 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할텐데.....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의 치열성은 좀 들뜰른지 모르지만 정원이 부족하고, 대학의 정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울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학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학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뒤에 대학 보내줘야 됩니다.

● 위원 권혁풍

근데 앞으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회사에 입사할 때 그 출신학교란이 없어진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위원 권혁풍**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거를 따지지 않고 순전히 참 학생들의 능력을 위주로 해서 뽑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구태여 입시에 매달려서 보통교육을 대학입시에다 그냥 전부 연결을 시켜서 대학입시가 최종목표가 되는 그런 절름발이 교육이 과연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될 것이냐, 눈썹같은 것을 앞으로 중요시 하는데 아마 당락이, 대학의 당락이 이 눈썹에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뭔가 열린교육체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중등에서도.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예, 여기서 뭐 더이상 말씀 드려봐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뭐 입시교육을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서로 검토하는 과제로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이상으로 뭐 질문있으십니까?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장위원님.

● **위원 장충호**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교육, 교육, 이렇게 하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관점을 항상 가지고 생활해 오던 차에 이런 책을 봐서 참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다 못봤지만 한번 쪽 훑어봤습니다.

보고서 이런 좋은 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돼야 할까 하는 염려와 걱정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서 다소 제가 안심을 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몇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풍부한 한문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첫째 가르쳐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볼것 같으면 많이 보고 많이 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안 배우고, 많이 모르는게 있어도 훌륭한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풍부한 한문지식도 가져

야 되지만 인격을 겸비한 그런 훌륭한 교사가 이 책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프로테이지와 그 그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책을 십분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하는 걸 알고자 하니까 전공한 사람이 1%, 부전공한 사람이 6.6% 합해서 약 8%가 잘 안됩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2.6%입니다.

● **위원 장충호**

2.6%입니까? 6.6%가 아니고요?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위원 장충호**

여하튼 제가 볼 적에 이 내용에 본다면 참 조금 쉬운 어지간히 조금 한문 배운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이 한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해독하기가 어려운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선생님이, 담임선생님한테 이걸 다 줬다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전공하신 분도 사실은 매일매일 한문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크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셨다면 먼저 이 책을 머리말에 두고 항상 옥편을 옆에 들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훌륭한 책이 우선 돼 나왔으니까 이게 편집후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첫번째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좋은 책을 아주 참 훌륭한 책으로 만드는 동시에, 또 이책으로 말미암아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훌륭한 인격을 겸비하도록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면 하는 염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 제가 거기 다섯번째, 제목번호와 함께 쪽 표시를 해달라는 걸 혹시 잘 이해를 못하셨을까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283페이지 부록에 보면 말씀이죠, 인성교육 지도자료 일람표해서 맨 끝에 란에 제목, 번호가 있습니다.

19번하면 그 옆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57쪽, 그 다음에 제목 9번에 47쪽, 그 제목 43에 83쪽, 이렇게 쪽수를 해 주면 이 책을 활용은 대번에 쪽수에 의해가지고서 편리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참말로 이 책을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훌륭한 교사도 만들고 장래 이 나라를 짊어갈 그런 학생도 많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지금 장충호 위원님 질문에 교육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교육감 정인영

예.

● 의장 김영세

예, 말씀하세요.

● 교육감 정인영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혼란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다 교육에,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등한시 한 탓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실을 시인을 합니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고 하니, 학생들에게 도덕성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신이 예의가 없고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인성교육 장학자료는 선생님도 배우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장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아주 몸에 배게, 머리에 완전히 익혀가지고 학생들도 매일매일 한시간씩, 한덕목씩 가르칠 수 있게 그 장학자료는 학생

을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또 교사도 가르치는 교사도 같이 자기 자신도 배우게 이렇게 두가지 효과를 노려서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 의장 김영세

뭐 더 질문없으시죠?

(위원 모두 “예.” 하고 말함)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의장 김영세

예,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 '97학년도 국민학교 설립계획안

(16시 4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학년도 국민학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7학년도 국민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예,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7분 폐회)
---	---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웅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별첨1)

議 事 日 程(案)

第 49 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5.4.18-4.21(4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5.4.18(화) 11:00 14:00	※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4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 의안관련 현장방문 ◦ 청주 분평국(가칭) 설립예정지	회 기 4.18-4.21. (4일간)
4. 19(수)	【 본회의 휴회 】 ※ '95학년도 신설학교 방문 ◦ 청주지역(수곡국, 교동국, 용암중)	
4. 20(목)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제2차 본회의 산회 】	
4. 21(금) 11:0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 의결 3. 기타안건 처리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회	

(별첨2)

의안 번호	제 49-1 호
의결연월일	1995. 4. 18. (제 49 회)

'97학년도국민학교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1995. 4. 10.

'97학년도국민학교설립계획안

=====

의 번	안 호	49-1
--------	--------	------

제출연월일 : 1995. 4. 1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설립목적

-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건축으로 인한 교육인구의 집중에 따른 학생수용
- 과대학교 분리 및 교육여건 개선 도모

□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교 급별	교육청	학교명(가칭)	위 치	규 모	개교예정 연 월 일
국	청 주	송골국민학교	청주시 흥덕구 가경(3) 택지개발지구내	36학급	'97. 3. 1.
		분평국민학교	청주시 흥덕구 분평 택지개발지구내	36학급	'97. 3. 1.
	충 주	금릉국민학교	충주시 금릉 택지개발지구내	36학급	'97. 3. 1.

○ 학생수용계획

- 국민학교

학교명 (가칭)	수용계획			소요교실수				관 련 학 교 현 황				
	학급수	학생수	급당 평균	보 통	특 별	관 리 실	계	학교명	분 리 전		분 리 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송골국	36	1,576	43.7	36	16	3	55					
분평국	36	1,395	38.7	36	16	3	55	남성국	51	2,102	37	1,470
금릉국	36	1,620	45.0	36	16	3	55	중앙국	49	2,268	38	1,604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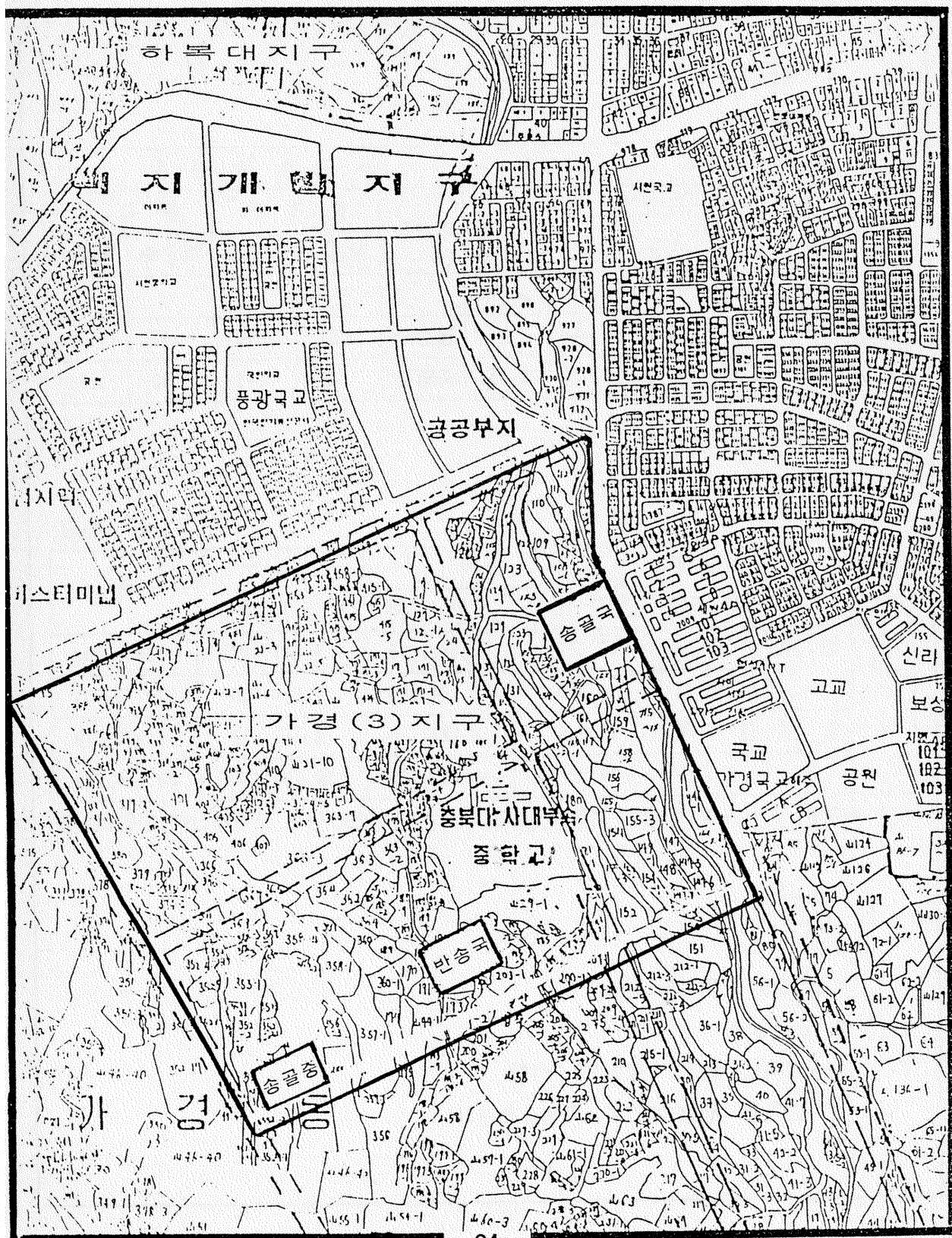
학교 급별	교육청	학 교 명 (가 칭)	부 지		건 축 비 예 정 액	계
			면 적 (㎡)	금 액		
국	청 주	송 골 국	12,092	3,885,885	4,917,667	8,803,552
		분 평 국	11,325	2,861,685	4,914,699	7,776,384
	충 주	금 릉 국	11,570	2,172,560	4,757,819	6,930,379
	계	3 교	34,987	8,920,130	14,590,185	23,510,315

※ 부지는 '95년도중에 매입 완료하고, 건축비는 '96년도 당초 교특예산에 반영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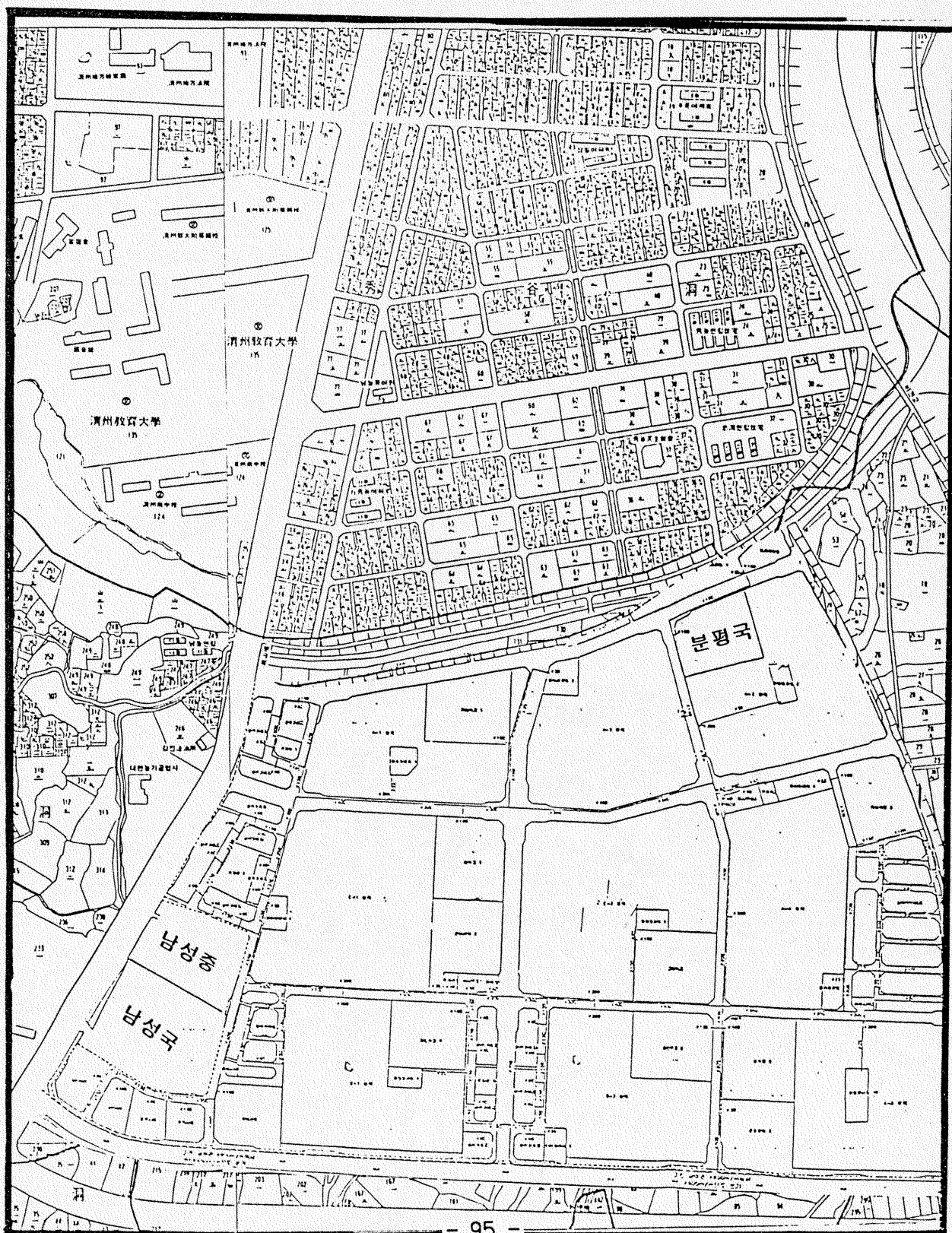
□ 참고사항

- 신설학교 위치도 3부.
- 근거법령
 - 교육법 제82조 (설립자) 제1항
 - 교육법시행령 제53조 (학생수용계획)

'97. (가칭) 송골국민학교 위치도



'97. (가칭) 분평국민학교 위치도



(가칭) 금릉국민학교위치도

